



[뉴스] 삼성의 미래 'AI' 한국을 AI 거점으로 인력 1000명 양성 02



Economy

코스피	2024.46 (-5.23)	코스닥	657.46 (+8.79)
금리 (20년)	1.94 (0.00)	환율 (원/달러)	1138.10 (-1.50)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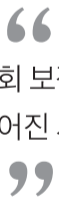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함께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

##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사회안정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 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기회 보장되는 나라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포용을 말한다.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복지·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포용적 성장·포용적 번영·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 노력으로 우리는 ‘잘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지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며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이 ‘평화의 한반도’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와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간간해진 심사에 내년 무더기 상폐 우려

# 재감사땀 추가비용에 허리 휘청

## 新외감법 도입

### 코스닥 상장사 부담 가득

올해 상장사 의견거절 급증 상장폐지절차 보류소송 늘어 감사의 신뢰성 문제 제기도

“디지털포렌식(저장매체와 인터넷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 기법)에 개선 기간 대부분이 소요돼 재감사 착수가 지연됐다. 거래소는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기업 측 요청을 거절했다.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2018년 9월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앞 소액주주 집회)

코스닥 상장사인 모다 등은 최근 증시 퇴출에 반발해 결국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정리매매 중단)을 낸 상태다. 2019년엔 이런 광경이 더 흔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시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1천억원 이상	기타
시행시기	2019년 감사보고서	2020년 감사보고서	2022년 감사보고서	2023년 감사보고서

/코스닥협회

법)이 시행되면서 회계법인들이 앞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회계법인 감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면 반발하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

감사인 권리가 강화되면서 늘어난 시간과 비용 부담에 불만을 품고 있는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회계법인들은 20억원 안팎의 재감사 수임료를 받고도 재감사 보고서조차 내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간간해진 회계법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받은 11개 코스닥 상장사 중 4개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

된 상태다.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감사의견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법원의 결정은 이례적이라든가 증권가의 설명이다. ‘외감법’이 강화되기에 앞서 회계법인들이 코스닥 기업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증권업계 분석이다.

작년 결산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던 상장기업 80%가 재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다. 전년보다 두 배로 급증했다.

개정된 외감법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적용을 받는다.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

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이다. 이때 감사법인 교체과정에서 과거 부실감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련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내년에는 더 큰 상장폐지 대란이 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는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 기준을 높였지만 내년부터는 외감법에 따라 감사 영역이 넓어지고 세밀해지기 때문이다.

갈등도 표면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99건으로 전년(81건)대비 18건 늘었다.

### ◆투명성 제고는 좋지만, 결국 비용

새로운 외감법 시행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제도 중 하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南北 적대행위 중지 첫 날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1일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시민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소액공모 100억까지 허용... 사모펀드 ‘49인룰’ 폐지

## 금융위 ‘자본시장 혁신과제’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도입 등 자금공급체계 전면개선 초점

앞으로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액공모가 100억원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49인룰’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정책보증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며 “자본시장을 대졸시장과

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한도는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며, 30~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사모펀드 발행 범위는 확대된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한다.

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발행이라면 광고나

SNS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해진다.

이런 개선방안은 오는 12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면 내년 1분기 중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BDC 제도도 도입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다. 비상장 혁신기업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기 쉬워진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늘린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직업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해준다.

/안상미기자 smahni@

# 한국을 AI 거점으로... 글로벌 인력 1000명 양성

(2020년까지)

## SAMSUNG 삼성의 미래

### ② 인공지능 (AI)

세계적 연구인력 확보에 총력전  
스타트업 비브랩스·플러트 인수  
'넥스트Q 펀드' 조성해 투자 지속



13일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18'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현석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을 신성장동력으로 꼽고 전 세계 거점에 AI 연구센터 설립, 연구인력 영입, 포럼 개최 등을 하며 세계적인 AI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AI를 삼성의 4대 미래 성장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AI 기술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일부터 20일 동안 북미와 유럽을 돌며 AI 등 신사업 발굴에 집중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구속에서 풀려난 이후 6번째 출장이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전 세계 주요 지역에는 AI 연구센터가 잇따라 설립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한국 AI 총괄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1월 미국 실리콘밸리, 5월 영국 케임브리지·캐나다 토론토·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어 9월 미국 뉴욕에 이어 지난달 캐나다 몬트리올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몬트리올은 북미 지역의 AI 기술 연구의 메카로 주목 받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 4번째로 개소한 몬트리올 AI 연구센터를 통해 기간 협력해온 맥길대학교, 몬트리올대학교 등의 세계적인 AI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인재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실리콘밸리 AI 연구센터장인 래리 핵 전무는 "일상생활에 AI 기술을 적용하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삼성전자 몬트리올 AI 연구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면 현재 당연한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인 AI 석학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삼성전자는 AI 인재가 풍부한 지역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해 각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AI 연구인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머신러닝 전문가 래리 핵 박사, 앤드루 블레이크 박사를 비롯해 AI 기반 감정인식 연구로 유명한 마야 팬틱 교수, AI 로봇틱스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다니엘 리 박사, 뇌 신경공학 기반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 세바스찬 승 박사 등을 영입했다.

AI 관련 스타트업 인수와 투자도 늘리고 있다. 2016년 11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비브랩스를 인수했고, 지난해 11월 대화형 AI 서비스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플러트를 사들였다. 올해에는 AI 스타트업 투자 전용펀드 '넥스트Q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 기술 등을 갖춘 미국 스타트업 롬(Loom) AI에 300만달러(약 32억원)를 초기 투자했다. 롬 AI는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 기술, 시각 효과 등을 활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을 기반으로 3D 아바타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갤럭시S9의 'AR(증강

현실) 이미지'의 기반 기술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스위스의 기업용 스마트워크 모바일 플랫폼 업체 비키퍼, 헝가리의 자율주행차 기술 기업 AI모티브, 벨기에의 사물인터넷(IoT) 기업 센티안스, 이스라엘의 AI 음성인식 플랫폼업체 오디오버스트, AI 딥러닝 업체 알레그로, 스웨덴의 AI 기반 지도 제작업체 맵필러리 등에 투자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AI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삼성 AI 포럼 2018'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틀간 약 1500여명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교수, 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삼성리서치 소장인 김현석 사장은 "빠르게 진화하는 AI 분야의 최신 기술과 미래 전망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 포럼을 통해 얻은 통찰의 결정체가 인류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0년까지 한국 AI 총괄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 거점에 약 1000명의 AI 선행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서용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6개월째 투자감소... 반전 모멘텀 만들 것"

##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회의

"정부·정치권, 규제혁신 결단내고  
근로시간 단축문제 마무리 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반전 모멘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투자가 일어나는데 집중하겠다"며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과 보상체계 조정 문제 등 상생 방향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대·중소기업 협력 이익 공유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이 올랐다.

김 부총리는 "8조7000억원을 들여서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계획했는데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환경영향 평가 완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거취 논란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며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의심을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올 수출 사상 첫 6000억 달러 돌파 전망

산업부, 10월 550억 달러 집계  
6개월 연속 500억 달러 넘어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549억7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2위 기록이다.

월별 수출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올해 총 7번이나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10월 수입은 484억2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27.9%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65억5000만 달러로 81개월 연속 흑자다.

산업부는 수출 증가 요인으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품목 고부가 가치화 노력, 무역보험 확대 등을 통한 수출품목 다변화, 지역별 편중 없는 수출 성장유도,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 국제유가 및 주력제품 단가 상승 등을 꼽았다.

1~10월 누적 수출은 작년 대비 6.4% 증가한 5053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사상 첫 연간 60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10월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13대 주력

품목 중 석유제품(75.5%), 일반기계(51.7%), 석유화학(42.9%), 차 부품(36.9%), 자동차(35.7%), 섬유(30.4%), 반도체(22.2%), 철강(22.2%), 가전(5.6%), 컴퓨터(3.4%) 10개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115억9000만 달러)은 6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수출하며 역대 2위 실적을 냈다.

일반기계(49억9000만 달러)와 석유화학(44억9000만 달러) 수출은 역대 최고다.

자동차는 최대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전 지역 수출이 증가하며 2개월 만에 반등했다.

디스플레이(-7.9%), 무선통신기기(-18.2%), 선박(-55.0%) 등 3개 품목은 해외생산 확대와 판매 부진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지역별 수출 증감률은 독립국가연합(85.2%), 일본(50.5%), 인도(48.6%), 미국(47.6%), 중남미(45.0%), EU(37.1%), 아세안(19.2%), 중국(17.7%), 베트남(10.2%), 중동(-3.9%) 등이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인프라 구축과 제조업 경기 상승 등으로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 13개월만에 최대폭

소비자물가지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곡물·채소 등 농산물과 석유 제품 등 일상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져 가계 부담을 키우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1일 공개한 '2018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2015년=100)로 작년 10월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작년 9월 2.1% 이후 13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다 13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산물이 14.1% 상



승해 전체 물가를 0.63%p 끌어올렸다. 채소류 물가는 13.7% 상승했다. 작년 8월 22.5% 오른 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통계청, 전년동기 비 2% 상승  
채소류 13.7%, 쌀 24.3% 올라

폭으로 났 것이다. 쌀(24.3%), 토마토(45.5%), 파(41.7%), 무(35.0%) 고춧가루(18.8%)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석유류는 11.8% 올라 전체 물가를 0.53%p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석유류는 올해 6월부터 5개월째 10%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휘발유는 10.8%, 경유는 13.5%,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11.0%, 등유는 15.9% 상승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6일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터 부과되는 유류세를 6개월간 약 15% 내린다. /세종=최신용 기자

# 부동산, 21세기 한국판 튜립?... '서울 불패' 기대감 여전

(17세기 네덜란드의 거품경제)

## 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 버블붕괴 예고 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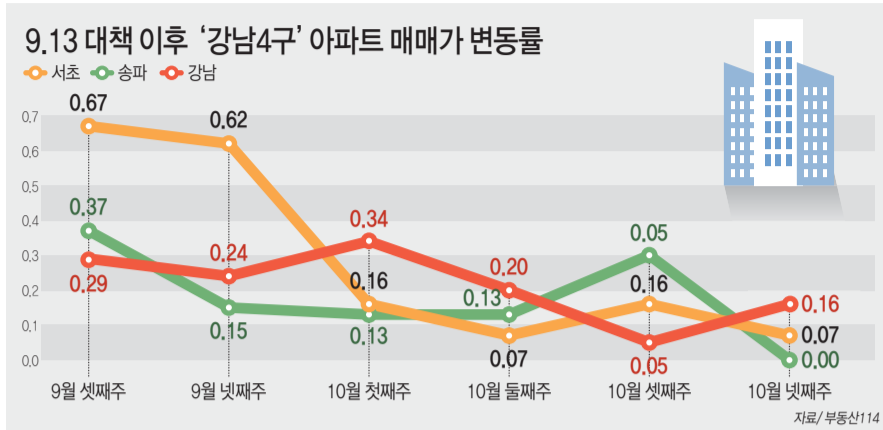
### 부동산 시장 '튜립 파동'

집값 바로미터 '강남 3구' 하락세  
거품 '잠시' 꺼진 것... 매매도 없어

'서울 불패(不敗), 강남 불패, 부동산 신화...'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부동산 시장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열두번의 부동산 정책 효과다. 강남은 호가가 멈추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잠잠하다. 그러나 불패는 불패. 여전히 서울 지역의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도로도 청약에 목매는 분위기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오름폭이 둔화했다. 지난 8월 마지막주 0.57%의 최고 상승률을 보인 후 상승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9·13대책 이후 매도세와 매수세 모두 관망세가 지속되며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꺾이는 추세다.

송파의 경우 9·13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둘째 주만 해도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71%에 달했다. 그러다 10월 마지막 주엔 0.00%로 처음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강남은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가 0.31% 올랐으나 10월 마지막 주엔 0.16% 상승에 그쳤다. 서초도 9월 셋째 주 아파트 변동률이 0.67%까지 치솟았다가 10월 마지막 주엔 0.07% 올랐다.

전체적으로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 과열의 불씨가 꺼졌다는 평이 나오는 이

유다.

지난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복합개발(마스터플랜)' 구상 발표 이후 주목받던 '마용성'도 안정을 찾고 있다.

마포의 경우 9월 둘째 주부터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46%→0.43%→0.59%로 상승하다가 10월 둘째 주 0.08%로 변동률이 크게 줄었다. 10월 마지막 주엔 매매가 상승률이 0.07%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이 '잠시' 꺼졌다고 보고 있다.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31일부터 DS 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강화되는 등

대출을 조일대로 조여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DSR은 간접적인 대출 총량제와 다름없는데다 9월부터 2주택 이상 세대는 규제 지역의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 타이프하게 규제하고 있어 유효성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주택 시장에서 '서울 불패'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분위기다.

마포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호가 상승은 멈췄지만 실제 매매가를 크게 내리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이후에도 상승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용산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9·13 대책 이후 대부분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10월 넷째 주 0.07% 오른 뒤 10월 마지막 주엔 0.14%로 상승폭이 커졌다.

성동도 9월 셋째 주 이후 0.37%→0.06%→0.03%→0.06%→0.00%로 떨어지다가 10월 마지막 주에 0.1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9월 이후 호가가 조금 내렸지만 실제 그 가격으

로 거래된 건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서울 불패, 강남 불패 기대감이 있어서 매매가를 내리고선 거래를 안한다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런 현상은 '튜립 파동'을 연상케 한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지 얼마 안 되는 튜립이 큰 인기를 끌며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 꽃이 피지 않았는데도 미래 어느 시점을 정해 특정 가격에 매매한다는 계약을 사고팔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팔겠다는 사람만 남쳐나 거품이 터졌다. 상인은 빈털터리가 됐고 튜립에 투자했던 귀족은 영지를 담보로 잡혔다. 최초의 거품 경제 현상이다.

이에 대해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평균 주택 가격이 26% 상승한 가운데, 한국의 상승률은 38%에 달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과다하게 오른 상태"라며 "제3자에 의해 손바꿈을 지속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아직까지 시장 침체라고 보기 어렵고 거품이 더 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D램·낸드 가격 급락했지만... 전문가들 '낙관'

수요 꾸준해 매출 타격 미미할 듯  
내년 공급 초과 해소로 회복 기대



D램반도체와 낸드플래시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꾸준한 수요와 공급 초과 현상 등으로 내년 시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상성전자

D램 반도체 가격이 지난달 1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낸드플래시도 2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 회복을 기대하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은 1일 PC에 주로 쓰이는 D램 메모리 DDR4 8Gb 제품 지난달 말 가격이 개당 7.31달러였다고 발표했다. 전달(8.19달러)보다 10.74%나 떨어졌다.

제품 가격은 올 들어 8달러를 넘어서면서 상승을 기대케 했지만, 결국 보합세 끝에 1년 전 가격인 7달러 선으로 주저앉았다.

PC용 4GB D램 모듈 역시 4분기 계약가격이 31달러로, 전분기 대비 10.14% 하락했다.

디램익스체인은 11월과 12월에도 D램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내년 1분기에는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에는 최고 20% 안팎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세도 이어졌다. 메모리카드와 USB 등에 사용되는 128GB MLC 제품 가격이 지난 9월 3.8%, 지난달 6.51%로 하락폭을 넓혔다. 4.74달러로 작년 2월 이후 처음 4달러대로 돌입했다.

64GB MLC도 전달보다 5.8% 떨어져 3.25달러에 불과했다. 프리미엄급인

SLC 32GB급은 12.8%나 하락해 13.2달러 시세를 기록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D램 수요가 꾸준한 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매출에는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급 초과 현상 해소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는 중이다. 삼성전자도 10월 31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김재웅 기자 juk@

## 내년 경제성장률 2.6%... 취업자 13만명 ↑

### 한국금융연구원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교역 둔화와 금리상승의 영향 탓에 총수출은 2.1%, 민간소비는 2.6%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성장률을 낮추리라고 내다본 것이다. 또 내년도 취업자 수는 정책 효과 덕에 13만명 증가하지만, 주식 시장은 올 하반기 주가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9년 경제 및 금융전망 세미나

를 열고 2019년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7%보다 낮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과 신중국 불안, 미국 금리 인상 기조 등이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2.8%)보다 낮은 2.6%로, 미·중 통상갈등으로 세계 교역이 둔화하면서 총수출 역시 1%포인트(p) 이상 떨어진 2.1%에 그칠 것으로 봤다.

최근 건설 수주와 주택매매가 부진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은 내년에는 마이

너스(-) 3.2%로 낙폭을 커질 전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반도체 업종 투자 증가 덕에 마이너스에서 벗어난 2.1%로 예상됐다.

최근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취업자 증가 폭은 13만명으로, 올해 9만명보다 나은 성적을 보일 듯하다. 실업률 전망은 3.8%였다.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국제유가 상승 덕에 1.7%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내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2.3%, 경상수지는 631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금융연구원은 밝혔다.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올해는 달러당 1101원이지만 내년부터 1125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김문호 기자 kmh@

## 업계 최초 SK울산CLX에 50MWh급 ESS 구축

### SK이노베이션·SK E&S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SK 울산 CLX에 국내 에너지·석유화학업계 최초로 전력수요 관리용 ESS(대형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주력 생산기지인 SK 울산CLX에서 ESS 배터리를 공급한 SK이노베이션, 향후 운영을 담당할 SK E&S 관계자 및 SK울산CLX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수요 관리용 ESS 구축'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부터 2박3일간 열린 SK 그룹 CEO 세미나에서 '사회적 가치를 통

한 BM(비즈니스 모델) 혁신' 방안이 논의된 후 첫 구체적인 실행이다. 설계, 배터리 제작·납품, 설치공사, 운영에 이르는 전 단계에 SK 그룹 관계사가 보유한 역량이 더해졌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향후 전기를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 ESS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친환경 사업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은 이번에 ESS 배터리를 성공적으로 공급하며 산업용 ESS 시장 안착 가능성을 보여줬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ESS 배터리 공급을 계기로 ESS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m6326@

## "감사비, 비용 아닌 '투자' 인식 전환 필요"

### >> 1년 '재감사' 추가비용에...서 계속

일정한 규모를 갖춘 기업은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회계법인은 내부회계관리 제도도 잘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지적을 키워왔다. 하지만 외감법 시행으로 회계법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을 내야하는 만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전망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 것. 심지어 감사 대상은 자회사까지 확대됐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키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만큼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한 코스닥 IR 담당자는 "그동안 규모가 작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산화하지 않고, 서류로만 끝낼 수 있었지만 외감법 개정으로 회계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시스템이 없

는 회사들은 다시 외부 회계법인을 고용해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정감사제 시행과 더불어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감사비는 자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꼼꼼해진 감사로 '재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기존 감사보수의 2배에 달하는 재감사 비용도 만만찮다. 또 다른 코스닥 IR 담당자는 "최근 전자증권제도 도입부터 지정감사제까지 코스닥 기업에게 비용만 늘리는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다"면서 "제도 개선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회계업계는 감사를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대형회계법인 회계사는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세무조사에서 적출 금액 비율이 확연히 적다"면서 "감사비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허인 “디지털은 숙명... 2조 투자·4000명 인재 양성”

(KB국민은행장)

(2022년까지)

## 창립 17주년 기념 DT 선포



KB국민은행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혁신에 2조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인재도 4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1일 서울 여의도본점에서 열린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KB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선포식을 갖고 디지털 혁신 조직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허인 행장은 이날 “대형 플랫폼 기업이 은행들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전기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었듯이 디지털은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며 변화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숙명(宿命)”이라고 설명했다.

허 행장은 목표로 2025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디지털 관련 투자와 4000명의 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언 모든 업무 프로세스 재편 ‘IT 기술 혁신센터’ 신설 핀테크와 파트너십 강화

지탈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도 내놴다.

먼저 영업점 단말기 화면을 비롯한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자신의 디지털 혁신 참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디지털 지수(Digital Index)’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금융권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IT기술 혁신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 및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활동을



허인 KB국민은행장(앞줄 가운데)이 1일 서울 여의도본점에서 열린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KB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선포식을 하고 있다.

강화해 국민은행의 서비스 영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이 동참하는 변화 혁신을 위해 다양한 변화혁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허 행장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디지털 변화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내외 디지털 선도기업을 방문하는 ‘디지털 탐험대’,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사내벤처 육성’, 디지털 전문가 양성 코스인 ‘디지털 아카데미’ 같은 다양한 활동과 연수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허 행장은 4대 추진방향에 더해 슬로건 ‘플레이 디지털(PLAY digital) KB’도 발표했다.

P는 ‘피플 오리엔티드(People-Oriented)’로 사람, 즉 고객과 직원 중심을 나타낸다. L은 디지털 변화를 리딩한다는 의미의 ‘리딩(Leading)’이며, A는 민첩하게 일하고 결정하는 디지털 조직이 일하는 방식인 ‘애자일(Agile)’을 뜻한다. 마지막 Y는 보다 젊고 혁신적으로 움직이는 KB를 상징하는 ‘영(Young)’이다.

직원들은 전국에서 생방송으로 선포식을 시청하며, 모바일 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디지털 선포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영업점 디지털 창구 확대, 인공지능 챗봇 개발, 갤럭시 KB 스타폰(KB금융폰) 출시, IT기술혁신센터 설립, 디지털 전문인력 200명 채용 등을 전형적으로 추진해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지난 31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2018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시민투자오디션'을 마치고 이상국 디지털그룹 부행장(뒷줄 오른쪽 다섯 번째)과 수상기업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회적경제기업 위한 ‘시민투자 오디션’

### IBK기업은행 투자 활성화 제고

IBK기업은행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31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2018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시민투자오디션'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오디션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기업은행 등이 후원했다. 이들 기관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디션을 개최했다.

오디션에는 총 9개 기업이 참가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크라우드펀딩 중

개 플랫폼을 통해 투자유치에 참여한 110여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 중 상위 기업이다.

오디션은 참가 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단과 일반 시민투자자 100여명이 모바일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상 기업들에게는 상금(총 790만원)과 함께 보증대출 연계지원, 기업투자정보마당에 기업정보 공개를 통한 추가 크라우드펀딩 추진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안상미 기자

## 외국환거래 위반 빈번... 영업점 전담인력 지정

### 금감원 검찰 통보건 9월까지 908건

외국환 거래법규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과 관련해 행정제재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통보한 건수는 908건이다. 이미 지난 2016년 567건을 크게 웃돌았고, 지난해 1097건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 은행의 외환 업무 처리와 고객안내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각 영업점에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자체

교육과정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환 거래고객에 대한 안내자료를 확충하고, 법규상 신고·보고의 무도 사전안내를 강화했다.

보고일이 된 고객에게는 일정 기간 전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의무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외환업무 처리 역량이 향상되고 고객 안내도 강화해 금융 소비자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도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을 수시로 파악해 제도를 고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대출 막히자 카드로... ‘빚 굴레’ 갚힌 신불자

(신용불량자)

### 금감원 은행 대출자 34% ‘다중 채무’ 신용유이자 증가세 ‘가계부실 초래’

#. 3년 전 보험영업을 시작한 이모씨(54). 당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받았던 3000만원의 대출이 있었지만, 처음하는 영업일에 자동차는 필수라 생각하고 자동차도 할부(캐피탈)로 구입했다. 그러나 최근 영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모씨는 새로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해 카드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간의 카드돌려막기는 그를 결국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대출조건의 폭이 좁아지면서 여러 금융권에서 동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카드로 이동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신용카드의 특성을 이용해 단기대출,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것. 그러나 다중채무자의 신용카드 대출은 과다 채무에 대한 최초의 행동으로, 신용유의

자(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가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신용카드의 신용유이자 증가세 대부·불법대부업 대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33.7%인 375만명이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대출자 중 은행과 보험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 대출을 동시에 받은 대출자는 74만명(전체의 58.0%)에 달했다.

그 중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을 약정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신용유자는 88만2039명으로. 2016년 85만7622명, 2017년 85만5196명에 비해 3만 여명(3.5%)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신용유자는 지난해 39만318명에서 올해 41만520명으로 2만202명 증가했다. 은행의 신용유자가 31만7721명(2017년)에서 올해 31만 7792

명으로 71명 증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유자가 14만7157명(2017년)에서 15만3727명(2018년)으로 657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큰 셈이다.

문제는 신용카드의 신용유자가 증가가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다 채무에 대한 최초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신용카드 돌려막기라고 대답한 수는 78.1%로 나타났다. 다중채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신용카드에 막바지로 몰리다 신용유자가 된다는 분석이다.

김순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카드빚 상환 등을 위해 사금융 업체를 찾은 사람의 85%이상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개인의 잘못된 소비 결정을 탓하기에 앞서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다른 선택의 경로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 자금·회계 담당자 분리하고 불시 점검



기업의 규모가 작더라도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자금과 회계, 거래의 실행과 기록 등을 한 명의 직원이 오랜 기간 혼자 담당할 경우 거래의 횡령사고가 발생해도 발견하기 힘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중소기업 경영진이 회계부정방지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내부통제 체크포인트를 이 같이 안내했다.

현금은 회사의 모든 활동에 관여되는 자산으로 유동성이 매우 높아 횡령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따라서 현금과 통장 잔고도 사전에 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횡령여부를 파악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불순한 동기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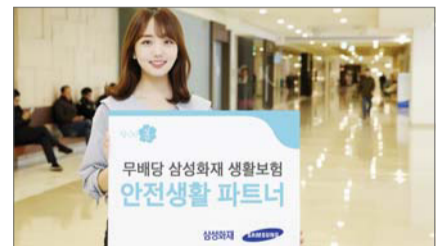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해야 한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내부관리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워 내부 횡령 등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

현금을 출금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갖춰놓는 것이 안전하다.

사전 등록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계좌를 등록한 후에 송금하거나,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송금하도록 하고 사후이라도 계좌를 반드시 등록하는 등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 회사의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최고 재무관리자(CFO)의 휴대폰에 동 내용을 문자 발송토록 조치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 삼성화재

## 생활보험 ‘안전생활 파트너’

삼성화재는 생활보험 신상품인 ‘안전생활 파트너’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전생활 파트너는 만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보장하는 생활보험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신종·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된다.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등의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김희주 기자 hj99@

# 삼성디스플레이, 매출 10兆 시대... OLED 투자 확대

“폴더블·전장 등 신제품 투자 늘려  
내년부터 OLED 수요 확대” 기대  
2019년부터 QD-OLED도 본격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의 순항으로 올해 3분기 기준 10조원 매출을 돌파했다. 액정표시장치(LCD)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더블, 전장 등 신규 제품 비중을 늘려가는 등 OLED 투자를 더 확대할 전망이다.

1일 IB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패널 부문에서 올해 3분기 매출 10조900억원, 영업이익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실적에서는 OLED의 역할이 컸다. OLED 판매는 이번 3분기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에 플렉시블 OLED 패널을 공급한 영향이 컸다. 앞서 애플은 지난 9월 폴스크린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

널을 탑재한 아이폰XS와 XS맥스를 출시했다.

또 화웨이와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올해 하반기 AMOLED 패널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는 등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AMOLED 패널을 탑재하기 시작

했다. AMOLED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삼성이 돌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권영 삼성디스플레이 상무는 “스마트폰에 OLED 패널이 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OLED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분기 스마트폰 패널 1억1450만대를 출하하며 스마트폰 패널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BOE가 6640만대, 티안마가 5530만대를 출하하며 뒤를 이었다.

LCD 판매도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었다. LCD 패널 가격이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급락했지만 지난

7월부터 반등하기 시작,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향후에도 퀀텀닷, 8K 등 고부가 제품 판매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폴더블, 전장 등 신규 분야로 패널 사업 확대해 OLED 패널 사업에서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2019년부터 QD-OLED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 삼성디스플레이의 QD-OLED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설비 투자 시기는 2019년 하반기일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큰 방향성을 연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현대자동차그룹, 공식 홈페이지 개편

기술혁신·전략투자 등 내용 추가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식 홈페이지의 기술혁신, 전략투자 콘텐츠를 개편했다.

1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콘텐츠 개편은 기존의 공식 홈페이지 내 그룹 및 그룹사 소개, 사회공헌 활동, 미디어 채널, 인재 채용 메뉴에 기술혁신 및 전략투자에 대한 홍보 내용을 추가했다.

기술혁신 메뉴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차량전동화, 신소재, 스마트홈, 에너지, 기타 등 7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쉬운 이해를 돕는 인포그래픽스, 기술홍보 영상 등을 담았다.

전략투자 메뉴는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한 5대 사업군인 인공지

능, 로봇, 모빌리티, 에너지, 오토모티브 영역에 속한 각 기업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better future)’이라는 그룹의 비전 아래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거듭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브랜드 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양성운 기자



## KT 기가지니로 제어하는 로봇청소기 출시

KT가 기가지니로 제어하는 인공지능 로봇청소기를 내놨다. KT는 11월 1일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은 KT와 로봇 전문기업 유진로봇이 제휴해 만든 제품이다. 유진로봇의 로봇청소기인 아이클레보에 기가지니 음성명령 인터페이스를 추가했다.

8개 음성 명령어 지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리모콘이 없어도 기가지니에 명령을 내리면 작동 상태나 모드 변경, 충전 등 작동이 가능하다.

그 밖에 예약, 나만의 청소모드 설정, 실시간 지도 그리기 등 편의 기능도 탑재했다.

기가지니와 연결 방법도 간단하다. 모바일 앱인 ‘KT 기가지니 홈 IoT’ 제휴사 등록 메뉴에서 유진로봇 계정을 1회만 등록하면 된다. 이후에는 별도 설정 없이 음성 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

KT는 1일부터 KT샵에서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을 판매한다. 11월 중에는 프로모션 가격으로 판매하며, KT인터넷과 TV 신규 고객에는 추가 할인도 주어진다.

/김재용 기자 juk@



KT는 기가지니로 제어하는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을 출시했다. /KT

## 날렵한 디자인에 강력한 터보엔진 장착

현대차 ‘더뉴 아반떼 스포츠’

커스터마이징 추가로 경쟁력 UP

현대자동차가 지난 9월 출시한 ‘더뉴 아반떼’에 1.6 터보 엔진을 장착한 ‘더뉴 아반떼 스포츠’를 선보인다.

현대차는 역동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주행성능, 다양한 첨단 주행지원 시스템 및 편의사양 등을 갖춘 더뉴 아반떼 스포츠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더뉴 아반떼 스포츠는 ▲스포티한 감성의 스포츠 모델 전용 디자인 ▲길어진 전장과 낮아진 전고로 날렵해진 이미지 ▲강력한 동력성능 ▲고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 ▲스포츠 모델 전용 커스터마이징 제품 추가 등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 모델인 ‘아반떼(AD) 스포츠’보다 50mm 길어진 전장과 기본 모델인 ‘더뉴 아반떼’보다 5mm 낮아진 전고



현대차 더뉴 아반떼 스포츠 실내모습.

는 더뉴 아반떼 스포츠의 날렵한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 외장 컬러는 7개 색상으로 운영되며 골든 플래시의 경우 더뉴아

반떼 기본 모델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더뉴 아반떼 스포츠만의 특별한 색상이다.

가솔린 1.6터보 엔진을 장착한 더뉴 아반떼 스포츠는 최고출력 204마력(p.s), 최대토크 27.0kgf·m, 복합연비 12.0km/l (7DCT 기준)의 파워풀한 동력성능을 갖췄다.

더뉴 아반떼 스포츠의 가격은 ▲MT 트림이 1964만원 ▲7DCT 트림이 2217만원 ▲프리미엄 트림이 2365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위아, 친환경 차량부품·스마트팩토리 시장 진출

2030년까지 연매출 16조원 목표

현대위아가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친환경 차량부품 및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제조사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현대위아는 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본사에서 ‘비전 결의 대회’를 열고 ‘WIA, The Next Solution(현대위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솔루션이 됩니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첨단 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동성’을 구현하고 ‘스마트 네트워크’로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위아는 구체적인 비전 달성 전략으로 ▲넥스트 모빌리티(미래지향 이동성 구현) ▲넥스트 테크놀로지(첨단 미래기술 선도) ▲넥스트 퍼서버빌리티(상생 및 혁신 창출)를 내세웠다.

현대위아는 “친환경 4륜구동 제품과 열관리 시스템 등 친환경 차량부품과 스마트팩토리 솔루션·로봇 공급업체로 도약한다”는 중장기 성장방안을 함께 내놨다.



현대위아 직원들이 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위아 본사에 전시한 ‘비전트리’ 앞에서 새 비전 ‘WIA, The Next Solution’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위아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 매출 16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는 ‘넥스트 모빌리티’의 일환으로 ‘차세대 4WD(4륜구동) 시스템 전문 부품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 4WD 시스템을 개발하고, 오는 2025년까지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4WD 시스템의 양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팩토리를 상용화하고 협동로봇 시장 진출 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위아는 현재 창원1공장과 서산공장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iRiS’를 상용화해 비전 ‘넥스트 테크놀로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iRiS는 생산현장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제어하는 공작기계 중심의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이다.

/양성운 기자

# TV 안쪽에 장식장이... 가구 품은 가전 '오브제' 첫 선



프리미엄 브랜드 'LG오브제' 론칭 TV·오디오·냉장고 등 4종 출시 스테파노 지오반노니 디자이너 참여 원목·금속 도입... 고급감 극대화

LG전자가 가전과 가구를 결합한 브랜드인 'LG 오브제'를 선보였다. 가구 시장 진출이나 '스마트홈' 전략과는 선을 그었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높은 활용도로 프리미엄 가전 열풍을 대중화한다는 포부다.

LG전자는 1일 서울 논현동 모스스튜디오에서 LG 오브제 제품 4종을 출시했다. TV와 오디오, 냉장고와 가습 공기청정기다.

오브제는 기존 가전제품을 '가구화'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TV는 가장 오브제 브랜드 특징을 잘 살린 제품이다. 안쪽에 3단 수납공간을 만들어, TV 장식장이 하는 역할을 흡수했



LG전자는 1일 가전에 가구를 결합한 프리미엄 브랜드 '오브제'를 론칭했다.

/LG전자

다. 냉장고는 하단에 작은 수납공간을 만들고 무게를 줄여, 필요에 따라 화장품냉장고 및 화장대나 미니바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LG전자는 오브제 디자인에 많은 공을 들였다. 세계적인 산업디자이너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참여했으며, 원목과 금속을 적극 도입해 고급감을 극대화했다.

가전 기능도 충실하다. TV는 65인치 UHD TV에 3.0채널 100와트 사운드바를 결합했다. 오디오는 영국 메르디앙 오디오와 협업해 만들었다. 냉장고는 컴프레서 대신 반도체를 이용해 소음을 대폭 줄였다. 가습 공기청정기는 서울수면환경연구소로부터 '수면 기능성 제품' 인증까지 받았다.

LG전자가 가구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



LG 오브제 TV는 안쪽에 3단 수납장을 마련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김재용 기자

한다는 의심을 가질만 하다. 당장 LG전자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가구박람회 '2018 추계 하이포인트 마켓 2018'에 '스마트 리빙 콘셉트'를 출품한 바 있다.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인 나무찌와 함께 참가했다.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다. 오브제 TV는 출고가 기준 999만원이다. 출고가 1000만

원을 넘는 시그니처 TV보다 저렴하다. 사운드바와 TV 장식장까지 감안하면 체감 가격은 더 내려간다.

그러나 LG전자는 완전히 선을 그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오브제는 가전에 가구 디자인을 입힌 것일 뿐, 가구 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은 아직 없다"며 "초 프리미엄 브랜드인 시그니처와 프리미엄 브랜드인 오브제가 위 아래에서 서로 밀고 당긴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오브제가 가구를 통합한 스마트 홈 가전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거리를 뒀다. 일단 오브제 4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능 대신 와이파이를 이용한 원격 조종만 가능하다. 개발 기간이 2년여가 걸렸던 탓이다. 추후 AI를 적용하는 등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지만, 오브제는 프리미엄 가전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LG전자관계자는 "오브제는 첨단 기술보다는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춰 만들었다"며 "추후 AI를 탑재한 모델을 출시할 수는 있지만, 스마트 홈을 염두에 둔 브랜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쉐보레, 말리부 최대 510만원 할인

내수 소비 촉진 '쉐비 페스타' 진행 스파크 130만원, 임팔라 620만원 ↓

한국 철수 논란에 이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의 쉐보레가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 가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쉐보레는 11월 '쉐비 페스타'를 시행, 연말 혜택을 미리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연중 최대 할인 혜택으로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동일하게 제공된다.

스파크는 할인 혜택을 전 트림으로 확대하는 한편 할인 폭을 13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월 10만원으로 스파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차 최초 10년 초장기 할부를 시행한다.

지난 달 선보였던 LG 트롬 건조기 출고 기념품은 연말까지 제공되며, 할인 대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

신 선택이 가능하다.

말리부는 할인 혜택을 전 트림으로 확대, 최대 510만원까지 할인을 제공하며, 트랙스는 가솔린 모델 기준 최대 280만원을 할인한다. 차종별 최대 할인폭은 임팔라 620만원, 이쿼녹스 2018년형 기준 250만원, 카마로 45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상품성 개선 '2019년형 이쿼녹스' 출시

쉐보레, 세부 트림 7가지로 확대 편의사양 강화... 가격은 그대로

쉐보레가 1935년부터 시작된 SUV 개발 노하우로 탄생시킨 아메리칸 대표 중형 SUV '이쿼녹스'의 2019년형 모델을 출시했다.

1일 쉐보레에 따르면 2019이쿼녹스는 세부 모델별로 기본 적용되는 안전사양과 편의사양을 보강해 상품성을 높이면서도 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해 경쟁력을 높였다.

햄틱사이트(무소음 진동 경고 시스템), 시티 브레이크 시스템(속차동 긴급 제동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과 함께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을 전 모델에 추가로 기본 적용했다.

또 신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쉐보레 이쿼녹스.

이 LS트림부터 기본 적용되며, 후방카메라와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 핸드프리, C타입이 포함된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포트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가격 인상 없이 기본 사양으로 전 트림에 적용된다.

LT 트림부터 적용되는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내비게이션과 고해상도 디지털 후방 카메라가 탑재되며, 클러스터 이오나이즈 기능 또한 가격 인상 없이 새롭게 추가됐다.

/양성운 기자

## LGU+ 3분기 호실적... 5G 상용화 속도내나

영업익 2281억... 전년비 6.5% ↑ IPTV 등 홈미디어 사업이 견인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인수와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통해 올해 양호한 실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여파에도 홈미디어 사업에 힘입어 3·4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향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케이블TV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시너지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5G 이동통신을 위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며 시너지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2조9919억원, 영업이익 2281억원, 당기순이익 1538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공시했다. 매출은 2.2%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6.5% 늘었다. 특히 이동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증가 등의 여파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5% 줄었다.

매출 가운데 영업매출은 2조3256억원, 단말매출은 6662억원을 달성했다. 영업매출 중 무선사업 매출은 1조3508억원, 유선 매출은 9644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선매출은 정부의 가계 통신부담 인하 정책의 영향을 받아 5.3% 감소했지만, 가입자가 늘었다.

LG유플러스의 호실적은 홈미디어 사업의 견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IPTV 수익은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인 253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1.5% 상승했다. IPTV 가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90만8000명을 기록했다. 홈미디어 매출은 이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보다 15% 증가한 5170억원을 기록했다. 홈

미디어 사업의 성장으로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요인을 상쇄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향후 LG유플러스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혁주 LG유플러스 CFO는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 "5G 시대에는 데이터 사용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5G 네트워크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G 주파수는 내달 1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맞춰 현재 서울, 대전 등에 시범망을 구축하는 등 5G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희 5G전략담당은 "단말의 경우 주파수 이용 시점부터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며 "5G 스마트폰 단말 출시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

## SKT '와이파이 기술' 글로벌 어워드 6년연속 수상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 '최우수 고객가치 혁신' 상

SK텔레콤이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로 글로벌 어워드에서 6년 연속 수상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최우수 고객가치 혁신' 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는 AT&T, NTT도코모, 퀄컴 등 전세계 통신사업자와 와이파이 장비 제조사로 구성된 '무선브로드밴드 연합'에서 주관한다. 와이파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 시상식으로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SK텔레콤은 차세대 와이파이 서비스 'T 와이파이 AX'를 통해 삼성등 코



SK텔레콤 조성민 브로드밴드테크랩 리더(오른쪽)가 수상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텔레콤

엑스, 광주 유스퀘어 등 트래픽이 밀집되는 장소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T 와이파이 AX'는 802.11ax 표준 기반 서비스로 AP당 최대 4.8Gbps 속도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다수 사용자 대상 동시 데이터 전송(OFDMA, MU-MIM

O)과 AP혼잡 지역에서의 와이파이 성능 개선(DSC) 등의 기술을 활용했다.

SK텔레콤은 올해 802.11ah 표준 기반 'IoT 전용 와이파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간단한 센서부터 고용량 IoT기기까지 최대 1000개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바로 오늘, 환상적인 마법판타지가 펼쳐진다!**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비주얼**

- 연예투데이뉴스 남궁선정 기자 -

**마법으로 눈을 홀리는 대 배우들의 호연**

- 오마이스타 김윤정 기자 -

**할로윈 사랑상자 같은 영화**

-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 -

**판타스틱한 모험과 마법은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는다**

- Globe and Mail -

**잭 블랙과 케이트 블란쳇의 성공적 만남**

- Hollywood Reporter -

**벽 속에는 숨은  
THE HOUSE WITH A CLOCK IN WALLS  
마법세계**

잭 블랙

절찬 상영중 전체관람가

케이트 블란쳇

증권 다이제스트



‘꿈이름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107명에 장학증서 수여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사옥에서 ‘KSD 꿈이름 장학사업’ 나눔 실천으로 2018년 신규 장학생 10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학증서 대상자는 전국의 학교,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업지원형’ 초·중·고생 80명과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인재양성형’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7명이 선정됐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초·중·고의 경우 졸업 때까지 연간 12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경우 졸업 때까지 연간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4억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손임지 기자



신한금융투자

케렌시아 음악콘서트 성료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31일 ‘케렌시아 음악콘서트’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서점이자 문화공간인 ‘최인아 책방’에서 진행된 이번 ‘케렌시아 음악콘서트’는 신한금융투자 ‘Tops Club’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Tops Club’은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등을 이용하면 거래실적에 따라 그룹 통합 ‘Tops Club’ 등급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수고객을 위한 서비스이다. 토크 콘서트와 클래식 음악 연주로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클래식 음악, 뇌과학, 상담심리학, 음악 치료학을 전공한 케렌시아 팀이 진행했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전자서식 디지털창구 도입

KB증권은 1일 부터 전 영업점에 전자서식 기반의 디지털창구를 도입해 업무 효율화와 고객중심의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창구를 통해 계좌개설을 비롯한 각종 업무처리를 종이서식에서 전자서식으로 전환하여 고객들은 보다 간편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받아들 수 있다. 태블릿을 통한 전자서식 작성 시, 전산에서 태블릿으로 신청항목과 기재필요사항 등 일부 데이터가 연동되어 고객이 일일이 모든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작성시간이 단축된다. /김문호 기자

세계적 자산 감소, 경기 리스크 확대, 美-中 무역분쟁...

추가 하락 가능성... 주식 줄이고 현금 늘려야

자산하락 원인, 단기 회복 어려워 美·中 포항국 투자시 신중 기해야 ‘금리상승 위험’ 채권 비중 축소

“재앙이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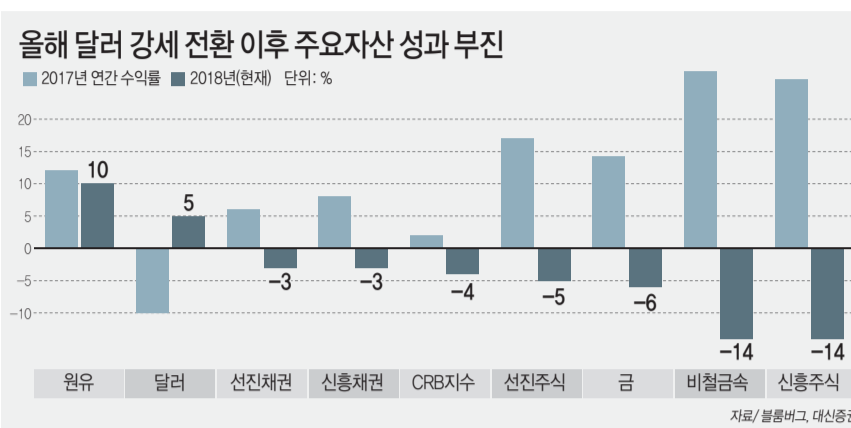
소나기를 피해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또 국내 증시가 해외증시 동조화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하는 추세다. 시장을 연출하고 있는 만큼 미국 등 해외증시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시세 변동에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중심을 잡고 일관성 있는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했다.

1일 대신증권 박형중 마켓전략실장은 주식자산 비중은 줄이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박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자산가격 하락은 경기하강 리스크 확대, 저금리 기조 종료 및 유동성 축소, 미중 무역분쟁 등 구조적 문제들이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가격 하락을 야기한 원인이 단기내 완화될 가능성이 작아 자산시장의 강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주식과 신흥국 주식의 비중을 축소해야 하



며,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 대해서는 투자시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금성 자산은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채권도 비중축소의 의견을 제시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의지가 악화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비관론자들은 최악의 경우 글로벌 증시가 ‘L자(字)형’ 모습을 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로 폭락할 가능성은 낮더라도 쉽게 치고 올라갈 장세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다.

주식형 펀드에서 나올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81억원이 순유출됐다. 302억원이 새로 설정됐고 483억원이 환매로 빠져나갔다. 코스피가 반등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18억원이 이탈하며 하루 만에 순유출세로 전환했다.

수익률도 곤두박질쳤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이 1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30일 기준)은 -15.42%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코스닥지수는 23.42% 떨어졌고 코스피는 14.81% 하락했다.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용에 관여하는 액티브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14.26%였다.

내년 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여파는 2019년 1분기에 집중될 것이라 전문가들의 설

명이다. 중국의 6%대 성장률이 위협받고, 해외수익비중이 높은 미국기업들의 실적 우려와 미국경제의 부정적 영향도 같은 시기에 나타날 것이라 분석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 국가안보’를 위한 대중국 고립전략으로 한 단계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국경제도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KB증권 이은택 연구원은 “한국증시의 밸류에이션은 경기침체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코스피 12개월 예상 PBR 0.84배)이다. 다만 글로벌 증시에 조정이나 하락이 나타나면, 저평가 매력 있다고 해도 한국증시만 홀로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4분기엔 이익 모멘텀도 다소 약화된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반도체의 이익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이 환경보호 대신 경기 부양을 선택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소재업종 실적도 하방 압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기준 금리도 부담이다. 자본 유출을 일으킬 수 있는 한미 금리 차가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12월 금리 추가인상은 물론 내년 3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기업 따라가던 금융업계... 이제는 해외로

올 71억달러 투자... 전년비 28%↑ 북미·유럽 지역 투자비중 급증

금융·보험업계가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일 한국수출입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해외 투자는 227억 달러였다. 지난해 상반기 237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 중 금융·보험업계가 투자한 돈이

71억(31.2%) 달러에 달했다. 전년 동기 55억 달러 보다 28% 늘어난 것이다.

금융·보험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2008년 38억 달러 수준에서 2017년 140억 달러로 증가 추세다. 전체 해외투자 규모 대비 비중은 2008년 15.6%에서 지난해 31.1%로 2배 가량 확대됐다.

전체 금융·보험업 투자 대비 금융업의 비중은 85%였다. 이밖에 금융·보험서비스 및 보험·연금부문은 각각 13%, 2%였다. 업종별로는 집합투자업·증권거래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자 투자가 60억달러로 전체 금융·보험업 투자의 85%였다. 기타 금융투자업 부문의 신규 법인 설립이 늘어난 덕분이다.

여신금융업과 지주회사는 각각 전체 금융·보험업 대비 3%, 2%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 및 저축기관 비중은 1%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 투자가 22억 7000만달러(전체 지역투자 중 32.1%)로 전년 동기 대비 35.2% 늘었다. 영국을 중

심으로 한 유럽투자 규모는 18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5.9% 증가했다. 이 중 영국 투자가 11억 달러에 달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정은 연구원은 “해외진출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면서 금융·보험업의 해외투자가 늘고 있다”면서 “기존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업의 동반 진출 형태(해외사무소 등)가 아닌 해외 법인 영업 규모 확대 및 신규 해외 영업 분야의 진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지난달 31일 ‘공공기관 CSR(사회적 가치 책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진중호 건보공단 서울본부장(맨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CSR포럼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공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책임(CSR)의 역할과 가치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CSR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11개 공공기관 및 2개 소비자시민단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한국품질보증원 황상규 국사는 공공기업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ISO26000 국제 표준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센터 우용호 소장은 ‘공기업 사회공헌 혁신모델 제안’에 대해 타기관의 모범 사례를 위주로 발표했다.

전문가 강의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비전 선포문도 함께 낭독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1452가구 분양

금호건설, 도보권에 지하철역 신설 초·중·고교 인접... 녹지공간 풍부

금호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AB14블록에서 공공주택 사업인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1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 지상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1452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별로는 ▲74㎡A 318가구 ▲74㎡B 362가구 ▲84㎡A 772세대 등이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예정)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신설역 이용 시 계양역까지 1정거장이며,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시 서울역까지 30분대에 접근 가능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옆으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나란히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정면적이 44%로 법정기준 보다 약 3배 가까이 녹지공간을 확보했다. 커뮤니티센터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조감도. /금호건설

는 휘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맘스카페, 바이크스테이션 등이 마련된다.

이 아파트는 검단신도시의 첫 번째 공공분양 단지로 분양가는 3.3㎡당 평균 1150만원대로 책정됐다. 계약금은 2회분 납제(1차 1000만원 정액제)로 진행된다.

청약접수는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 청약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며, 정당 계약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채신화 기자



금융위 '자본시장 혁신과제' 들여다봤더니

# 혁신기업에 '돈맥' 뚫어준다... 자금공급체계 개편

민간자금 中企·벤처기업에 유독  
전문투자자 15만명 증가 예상  
가격 산정 공적플랫폼 최소화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대출잔액은 814조 4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은 235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자금조달을 투자보다는 은행 대출에 매달려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다.

1일 당정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협의해 내놓은 것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자금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풍부한 민간 자금이 중·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돈맥' 뚫어주겠다는 의도다.

◆BDC로 일반투자자도 비상장기업에 투자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또는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 개선**

- 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 강화
  - '18.12월 개선방안 발표
  - '19.1사분기 자본법 국회 제출
- ②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 '19.2월 개선방안 발표
  - '19.上 자산유동화법 국회 제출
- ③ BDC제도 도입
  - '19.1사분기 개선방안 발표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상장된 BDC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자금 회수도 쉬워진다. 기업 역시 청산 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 등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BDC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상장된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SPAC)보다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스팩은 1개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BDC는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여러 개 비상장기업에 분산 투자한다"며 "BDC의 설립요건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역할까지 고려해서 좀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도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 요건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엄격했다. 당정은 이를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 등으로 완화하고, 소득·재산요건 외에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포함 시키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도 모두 전문투자자

가 될 수 있다.

박 정책관은 "국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4000명이고 자격증 관련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4만6000명 정도"라며 "이번 대책으로 전문투자자 수가 14만~1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IPO 주관사 자율성 확대

기업공개(IPO) 시장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그간 국내 IPO 시장은 수요예측과 주식배정 시 주관사에 별도 재량이 없는 탓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유인이 부족했다. 증권사 간 서비스 역시 차별화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허용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서식에 가격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최초 가격산정에 대한 공적플랫폼의 심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확대된 자율성 만큼 책임도 강화한다. 부실실사에 따른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올리고,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으로 성장사다리가 이어지도록 전문 프리코스닥 시장으로 키운다.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이 쉽도록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적 질적심사 적용 요건도 없앤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가격발견기능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때는 발행가격 산정을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코넥스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가 편리하게 대규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개인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현재 1억원인 기본예탁금의 차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국내 완성차업계, 신차·SUV로 국내외 판매 회복세

전세계 판매, 전년비 0.9% 올라  
시장별 판매전략·주력상품 적용

국내 완성차 업계가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과 추석연휴 이후 침체된 내수 시장에서 판매 반등에 성공했다. 해외 판매량도 동반 상승하며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10월 국내 6만6288대, 해외 34만1872대 등 전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총 40만8160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25.0% 증가, 해외 판매는 2.7%가 줄어든 수치다.

현대차는 국가별 위험 요소와 시장 특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장별로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적용해 올해 판매 목표 달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내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과 초대형 SUV 신차를 성공적으로 론칭시켜 판매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기아자동차는 국내 4만6100대, 해외 20만4194대 등 세계 시장에서 총 25만 294대를 판매했다. 신차 및 해외전략차종 판매 호조와 전년 대비 근무일수 증가 등의 영향 국내 판매는 전년 동기 대



비 22.9%, 해외 판매는 0.8% 증가하며 총 4.2% 성장했다. 차종별 글로벌 판매는 스포티지가 4만351대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K3(포르테)가 3만5423대, 프라이드(리오)가 3만1844대로 뒤를 이었다.

쌍용차는 내수 1만82대, 수출 3342대(CKD 포함)를 포함 총 1만3424대를 판매했다. 이는 주력모델의 판매증가로 내수, 수출이 동시에 월 최대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전체 월 판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하며 올해 월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쌍용차는 전년 대비 139.1% 증가한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 성장에 힘입어 내수 시장에서 월 최대 실적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6.0%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렉스턴 스포츠는 지난달 월 최대 실적인 4099대를 판매했다. 수출 역시 렉스턴 스포츠 등 신규 라인업을 본격 투입한 데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면서 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한 총 8273대를 판매했다.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등 쉐보레 주력 상품이 내수 실적을 견인했다. 트랙스는 젊은 소형 SUV 고객을

공략하며 전년 대비 62.5% 증가한 1558대가 판매되며 올해 월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스파크는 내수시장에 3731대 판매되며 전년 대비 15.6% 증가세를 기록했다. 말리부는 총 1939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3만2204대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은 내수에서 전월 대비 31.3% 증가한 8814대, 수출에서 전월 대비 24.7% 늘어난 9816대로, 총 1만 8630대를 판매했다. 지난 9월보다 27.8% 증가한 실적을 거두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

르노삼성의 판매 상승은 QM6가 견인했다. QM6의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한 3455대로 올해 처음 월 판매 3000대를 넘어섰다. 소형 SUV 모델인 QM3와 초소형 전기차 모델인 트위지의 판매도 증가했다. QM3는 전월 대비 34.7% 늘어난 590대, 트위지는 전월 대비 39.7% 증가한 109대가 판매했다. 르노 브랜드 중 클리오의 지난 달 681대가 출고되며 전월 대비 124% 성장했다. 르노삼성 수출은 북미 수출용 닛산 로고 8700대, QM6 1116대가 판매했다. 특히 로고는 북미 시장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양성문 기자 ysw@

## 금융위 연대보증 폐지 반년 "보증공급 위축 없어"

정부가 올해 상반기 금융권 연대보증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대출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구로디지털 산업단지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받는 보증이나 대출 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은행들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 이후 지난 6개월간 우려와 달리 신·기보의 보증이 크게 위축되는 일은 없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전체 보증공급액(신규·증액+만기연장)은 37조8천4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인 2천879억원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창업기업 보증 공급은 13조9천669억원에서 15조6천485억원으로 1조6천816억원 증가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은 4천409억원에서 4천110억원으로 299억원 줄었고, 건수도 1천91건으로 118건 줄었다.

은행권도 신규·증액 보증부대출 중 보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 전액 연대보증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이라면 은행이 손실 위험이 있는 나머지 15%만큼은 연대보증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했다. 대출 금리도 큰 차이 없었으며 보증부대출 후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후관리하는 시스템도 고도화된 상태다.

정부는 신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연대보증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기보는 매년 기존 연대보증 기업 중 20%씩 책임경영실사를 하고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만약 통과하지 못 해도 보증부 대출을 유지하고 나중에 다시 심사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국민 3명당 1명 '땅주인'... 수도권 거주자가 35% 소유

상위 50만명 토지 54% 소유

국민 3명 중 1명이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면적의 35%를 갖고 있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인 5178만명 중 1690만명(32.6%)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말과 비교하면 158만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상위 50만명의 토지 소유비율은 53.9%로 5년 전보다 1.3%포인트 줄었다.

연령대별로 60대의 보유비율이 26.6%

로 가장 높았고 50대 25.4%, 70대 19.1% 순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인 소유한 토지 비중은 0.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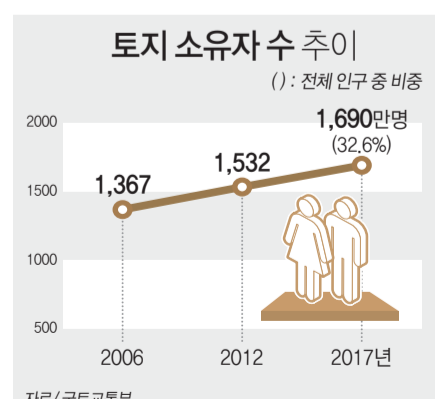
거주지별로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35.2%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어 경상권(28.1%)·전라권(16.4%)·충청권(13%)·강원권(5.7%)·제주권(1.5%) 순이었다.

토지 소재지 기준 관내 거주비율은 평균 56.7%였다. 이 중에서도 서울의 관내 거주비율이 81.6%에 달했다. 반면 세종은 관내 거주비율이 20%로 외지인의 토지 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 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남 3.0%, 경기도 2.9% 순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이번 토지 소유 현황 통계는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됐다.

토지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면적은 5년 전보다 175.7㎢ 증가한 10만364㎢로 집계됐다. 이 중 민유지가 51.3%, 국공유지 33.1%, 법인 보유 비중이 6.9%를 차지했다. 용도별로 농림지역이 49.0%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 관리지역



(23.6%)·녹지지역(11.4%)·주거지역(2.3%) 등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의성 있는 통계제 공을 위해 작성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 ‘형식적인 대답 No’... 니즈 파악 <sup>잘</sup> 하는 ‘챗봇 전성시대’

## ‘챗봇’에 빠진 유통가

기술 고도화로 단순 응대 벗어나 구매패턴·경향 분석해 맞춤 추천 SNS 등 접점 확대... 이용객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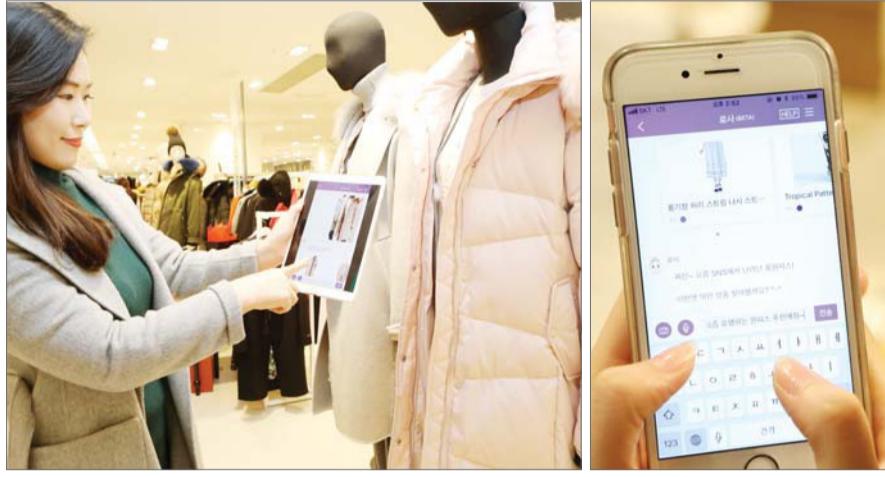
유통업계가 인공지능 챗봇(AI chatbot)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챗봇은 사용자와 AI가 일상 언어로 채팅을 주고받는 메신저로 특히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챗봇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소비자 질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를 분산할 수 있는 것.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도입 초기에는 F&A와 같이 정해져있는 대답을 내놓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것은 물론, 나아가 고객에게 맞춤형 제품까지 추천해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AI 쇼핑어드바이저’는 지난 10개월간 고객과 소통을 통해 고도화 과정을 거쳤다.

지난 9월부터는 KT의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를 통해서도 전국 롯데백화점의 영업시간, 식당가, 행사 안내 등 7가



/롯데백화점

지 주제에 대한 쇼핑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110만명의 고객이 이용 중인 KT기가지니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향후 AI 쇼핑어드바이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KT기가지니와 제휴를 통해 ‘롯데슈퍼 장보기 서비스’도 시작했다. 기가지니에게 ‘롯데슈퍼 실행해줘’라고 말하면 서비스가 시작되고 이후에는 TV화면을 보면서 ‘찾아줘’ ‘담아줘’ ‘주문해줘’ 세 가지 키워드만 말하면 쉽게 대화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주문 후 빠르면 3시간 내 배송도 가능하다.

AI 쇼핑어드바이저는 패션, 식품, 리빙 등 모든 상품군에 걸쳐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오프라인 매장에 대

한 질문에 답하는 등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롯데백화점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한다.

기존의 AI 쇼핑 도우미들이 키워드 검색에 따른 상품을 고객에게 단순히 나열해주는 것과는 달리, 롯데백화점의 AI 쇼핑어드바이저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과 연계해 고객의 구매패턴, 행동경향, 관심사항, 선호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자체적으로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한다.

고객과 만나는 쇼핑 채널도 확대했다. 롯데백화점은 공식 온라인쇼핑몰 ‘엘롯데’에서만 제공되던 AI쇼핑어드바이저 서비스 채널을 SNS로도 확대했다. 지난 6월부터 97만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롯데백화점 공식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서

도 해당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입점 브랜드, 영업시간, 휴무일 등 롯데백화점 35개 점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묻기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이 AI 쇼핑어드바이저 서비스 채널을 카카오톡으로 확대한 이후 일 평균 이용자는 직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AI 쇼핑어드바이저의 빅데이터가 쌓이면 고객의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계열사 별로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그룹 차원에서 ‘샬롯(Charlotte)’이라는 네이밍으로 통합, 브랜드화 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빠르면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11번가 역시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이 믿고 찾는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11번가에서는 사용자의 성/연령별, 주제/유형별 맞춤형 검색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개인화 추천 플랫폼 ‘콜로세오’는 고객의 쇼핑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상품을 추천해준다.

고객이 바로 직전에 본 상품들을 기반으로 고객의 현재 쇼핑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한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

상품뿐만 아니라, 카테고리, 기획전,

메뉴들의 노출 및 정렬 순서를 사용자 취향에 맞도록 최적화하는 것에도 추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MY추천’ 메뉴를 선보이면서 내가 관심 있어한 상품, 최근 구매한, 최근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들을 분석해 나에게 맞는 추천 상품들을 보여주는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파크는 2016년 5월부터 챗봇 서비스 ‘톡집사(Talk 집사)’를 운영하고 있다.

최초 응대시 AI가 자동으로 문의에 대한 답변과 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다만 복잡한 문의에 한해서는 전문 상담원이 답변하는 형태로 전환된다. 서비스 초기에 AI와 상담원의 대응 비율은 2:8 수준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AI와 상담원의 대응 비율은 약 5:5 수준에 달하고 있다.

톡집사 서비스는 초기 이용자 수가 5000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1만 1000명으로 늘어났고, 현재 일 평균 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와의 최접점에 있는 유통업계의 화두는 인공지능”이라며 “빅데이터와 기술이 집약된 챗봇이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고도화된 챗봇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전경

## 현대중·대우조선 ‘웃고’ 삼성중 ‘울고’

### 조선 3사 3분기 실적

현대중 289억... 대우조선 1369억

국내 조선3사들이 3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변경계약(체인지 오더) 체결에 따른 영향으로 흑자전환을 이뤘으며 오는 14일 실적이 발표되는 대우조선해양도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강재와 기자재 가격 인상으로 ‘예고된 적자’를 이어갔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3분기 실적에서 매출 3조2419억원, 영업이익 289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3.8% 증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액 2조1998억원, 영업이익 1369억원을 기록해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경우 1273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100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던 2분기 보다 26.7% 적자폭이 확대됐다. 매출액은 1조3138억원으로 1조

3466억원이었던 전 분기 대비 2.4% 줄었다. 강재 및 기자재 가격이 1770억원이 인상됐고 3년 치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900억원의 일시금 등 불가피한 손익차질 요인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선박의 주요재료인 후판가격도 2년전 통 당 60만 원대에서 현재 70만 원대로 상승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철강과 후판 가격이 인상되면 그만큼 선가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고스란히 조선사의 손실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적자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조선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수주가 늘고 있지만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지난 2016~2017년 당시 저가에 수주한 물량들이기 때문이다.

올해 기업별 수주량을 보면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미포조선 포함)이 111억 달러(135척), 삼성중공업이 49억 달러(41척), 대우조선해양이 46억 달러(35척)를 수주했다. 이 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연간 수주액을 넘어섰다. /정연우 기자 ywj964@

## 미래 먹거리 ‘블록체인’에 공들이는 게임사

### 관련 기업 인수하고 기술 개발 e-스포츠와 결합 등 신사업도

기존 사업을 벗어나 신사업이 절실한 것은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정보기술(IT) 업계도 마찬가지다. 트렌드에 민감한 게임사들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몰두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첨단에 있는 블록체인에 집중,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게임사들은 자회사나 별도의 사업팀을 구성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스테디에 전념하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 인수도 활발하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블록 처리를 통해 기록, 보관해 공인된 제3자가 없이도 신뢰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게임사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게임 내 결제시스

템이나 아이템을 거래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암호화폐처럼 게임머니를 기반으로 채굴하거나 보상해주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임사는 넥슨이다. 넥슨은 지난 30일 지수회사 NX C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코빗’ 인수에 이어 유럽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했다. 코빗을 인수한 지 1년 만이다. 비트스탬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힌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중견·중소 게임사도 블록체인 스테디나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초 블록체인 자회사인 위메이드트리를 설립했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26일 신규 블록체인 서비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위메이드트리는 독자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게임과 결합할 예정이

다. 이를 통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서비스에서 생성된 재화들은 위메이드트리가 제공하는 지갑을 통해 서로 공유되고 교환할 수 있다. 자체 지갑의 개발도 완료했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록 스캐너의 개발도 마무리 단계다.

블록체인과 e-스포츠를 결합한 신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공표한 액토즈소프트도 연내 초기 버전의 e-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할 방침이다.

엔게임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는 다빈치재단과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블록체인 전문 기업, 게임 개발사들이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 최근 결성된 ‘블록체인 게임 연합’에는 엔진을 비롯해 글로벌 게임 개발사 유니소프트, 컨센시스, 알토, B2익스펜드, 울트라, 피그, 길리, 에버드림 소프트웨어 등 9개 업체가 합류했다. /김나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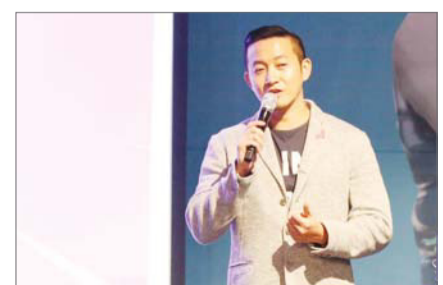
## ‘포트나이트’ 8일 PC방 개시... 온라인게임 ‘지각변동’ 오나

### 에픽게임즈 韓 시장 상륙

PC방 사업자 118일간 무료

에픽게임즈가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자사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PC방 서비스를 시작한다.

에픽게임즈코리아는 1일 서울 삼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C방 서비스를 이달 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C방 사업자들에게는 최소 118일간 과금 없이 무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성철 에픽게임즈코리아 대표가 ‘포트나이트’ PC방 서비스 시작 소식을 알리고 있다. /에픽게임즈

박성철 에픽게임즈 코리아 대표는 “포트나이트를 몰라서 안한 사람은 많지만

한번 빠진 사람들은 ‘갯깸’이라고 한다”며 “지스타 메인스폰서 출전과 PC방 서비스를 통해 한국 게이머에게 포트나이트를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에 비견되는 포트나이트는 국내 PC방 진출로 한국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현재 글로벌 돌풍을 일으킨 배틀그라운드는 불법 프로그램(해)으로 최근 국내 PC방 점유율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 틈을 포트나이트가 노리겠다는 공략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www.pdna.co.kr

# 눈부신 어린 피부 “비밀은 DNA”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 - 피디엔에이 크림

### 피부의 새로운 에너지, 바다 송어 추출 \*sodium DNA 함유

메마른 피부는 안티에이징 적신호. 연어과 어류인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등 7가지 피부보호 성분이 유수분밸런스에 도움을 주고 피부 자생력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줍니다.

\* sodium DNA, 아데노신, 병풀/어성초/치아씨/백년초열매 추출물, 올리브 오일 등

###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경험해보세요, 피디엔에이 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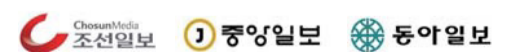
찬바람이 불어도 부드럽고 생기있게 빛나는 매끄러운 피부. 물광피부와 동안 관리 효과를 동시에 경험해 보세요. 피디엔에이 크림은 풍부한 영양감. 짙 찬 수분감으로 주름개선을 도와 피부에 새로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 [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국내 주요 일간지에 동안크림으로 보도,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pdna.co.kr](http://www.pdna.co.kr)에서 확인하세요.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 비이상적 사회 속, 당신은 ‘스튜핏’인가 ‘그웨이트’인가

##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④ 건전한 한국사회 되려면 (재)

유통업계, 경기 불황에도 ‘고가’ 투기와 담합 등 ‘집단 이기주의’ 제주도 난민·맘충·재벌 등 ‘혐오’ 이성·합리적 경제활동 필요할 때

‘아노말리(Anomalies)’란 시장의 이상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시장에서 나타나기 힘든 비이성적 행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경제적 논리와 동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을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라고도 부른다. 19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이 최고의 활황세를 구가할 때 당시 중앙은행(Fed)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장세가 ‘비이성적 과열’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사람들이 실제 가치보다 자산의 가격을 높게 평가하고 이로 인해 투기적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아노말리 현상은 때론 사회적, 경제적 병폐를 낳는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 곳곳에서 아노말리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병폐의 단면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노말리 현상들

먼저 유통업계에서는 경기 불황에도 고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샤넬,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1년 새 수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고가 정책을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앞세워 소비 심리를 자극,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문제는 이런 마케팅이 통한다는 점이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증가하는 ‘베블렌 효과’가 국내 시장에 만연한 데다 ‘가치 소비’가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투기심리가 가세한 부동산 시장 또한 대표적인 아노말리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

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반영돼 호가가 수억원씩 뛰고 청약에 몰리는 등 비정상적인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 투기와 담합 등 집단 이기주의도 팽배하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2 대책’에서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오히려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나 이성적인 것 같은 자본시장에도 ‘아노말리 현상’은 나타난다. 투자자에게는 지나친 투기 심리, 자본시장 노동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주식에 대한 심각한 가격 왜곡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지난 겨울 우리 사회에 광풍을 몰고왔던 ‘가상화폐 열풍’이 자본시장의 아노말리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튜립 버블을 언급하며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빠져드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우리는 아노말리 현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올해 사회적으로 뜨거

운 이슈가 됐던 제주도 유입 난민에 대한 이유없는 혐오와 ‘맘충’으로 대표되는 여성 양육자에 대한 비이성적 혐오, 노조 및 재벌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정치 혐오 등이 모두 아노말리 현상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 필요할 때

현실 속 인간은 때로는 비(非)이성적이고 간혹 비(非)이거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는데 고급휘발유를 조금 더 주유하는 사람도 있고, 비 오는 날에 목머치 않으려고 우산값을 올리지 않는 가게 주인도 있다. 기존 주류 경제학에 등장하는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보통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 보통휘발유를 더 많이 소비하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값을 올린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소비와 투자를 할 때 훨씬 더 심하게 비이성적으로 돌변한다는 점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지니는 많은 고정 관념과 인지(認知)의 오류를 분석한다. 그 결과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가 이성적인 판단에서 멀어짐으로써 국민경제 전

체의 저축 수준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증권 시장에서 여러 ‘이상(異常: anomalies)’ 현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노말리 현상에 대해 살펴봤다. 아노말리가 일반화 된 시대에 당신의 행동은 ‘그웨이트’ 일까, 아니면 ‘스튜핏’ 일까?

한국 경제는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용쇼크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우울한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 곳곳의 비이성적 아노말리 현상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야말로 아노말리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 이른바 ‘블랙 스완(Black Swan: 예외적이고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실제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부르는 용어)’을 대비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신뢰, 그리고 국민과 경제 참여자들의 올바른 행동이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거품과 모순들은 우리 자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최신호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워킹맘 10명 중 3명이 독박육아를 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유토이미지



지난달 16일 서울 보신각 맞은편 인도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가짜 난민을 추방하라”고 외치고 있다. / 뉴스시



최근 서울 지역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에서 ‘갭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 / 채신화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가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맺은 ‘특수학교 설립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어느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아빠는 육아휴직 10일, 할머니는 매달 25만원

(기초연금)

### 文 대통령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시행 ‘프리젠테이션’ 출산급여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어느 4인 가족’의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총 49쪽(표지포함)에 달하는 시정연설 관련 프리젠테이션도 별도로 준비해 선보였다.

문 대통령이 예로 든 어느 4인 가족은 결혼을 한 뒤 출산을 앞둔 30대 여성과 남성으로, 맞벌이를 하는 이들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말로 운을 뚫은 문 대통령은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 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

대 90일간 정부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산모는 또 출산을 한 뒤엔 건강관리사로부터 산후조리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면서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린 것이다. 또 3개월 후에는 9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절반을 받게 된다. 지난 9월부터는 한 아이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지급하기 때문에 분유값과 기저귀값 부담도 다소 덜게 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가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이라면서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3년이 지난 후엔 3000만원의 목돈을

만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65세가 넘는 어머니는 매달 25만원의 기초연금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기존보다 월급을 두 배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다”면서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당첨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엔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는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일부. /청와대

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침체되고 있는 경기를 그나마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

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안돼”... 대체복무 마련 시급

### 대법원, 유죄 선고 원심 파기 “공동체, 다룰 수 있는 자유 인정”

양심과 종교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와, 관련 심사 기준과 대체복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오씨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2013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자신의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선고를 듣고 귀가하고 있다. /이범종 기자

상고했다.

#### ◆대법 “양심=병역거부 사유” 파기환송

사건의 쟁점은 양심이나 종교가 병역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

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소집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 해당된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옹고 그릇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과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가 형사처벌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의무를 이행시키는 행위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내면의 양심을 국가가 불러내 형사처벌에 직면케 하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의 근거가 되는 양심의 판단 기준을 '전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규정했다.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병역 거부자의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 등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출한 관련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검사가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다룰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합리적 대체복무 마련 '진통' 예상

반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에 대한 참회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유럽과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다르다는 점, 양

심적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날 선고 직후 오씨는 “지난 세월 2만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내 덕분에 오늘의 판결이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관련 판결들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이날 선고를 반기는 한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는 법원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합숙 대체복무 36개월’로 알려진 정부안에 반대 성명을 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여론을 살펴야 하겠지만, 소수자는 평균에 있지 않다”며 “정부는 다른 소수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제할 의무가 있다. 정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범종 기자 jaker@metroseoul.co.kr

## ‘쌀 한가마니’ 18만8192원 목표값 산정

(80kg)

### 농식품부, 2022년산 까지 적용 국회에 변경 동의요청서 제출

정부가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산출한 18만8192원/80kg을 차기 목표가격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른 18만8192원/80kg으로 하되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쌀 목표가격 선정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 시에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고정직불제(농농업)와 변동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연간 1조1611억 원이 지급돼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쌀 직불금은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농촌 사회의 구조변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쌀 생산과잉 및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보전 기능 미흡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며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쌀 소비자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온라인으로 쌀을 사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개월간 쌀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증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31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8)' 개막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한국전력

## “전기요금, 국민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 김종갑 한전 사장, 국회주도 개편 요청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산업용 경부하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를 국회에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31일 광주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에너지 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 국회가 전기 용도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요금체계가 될지 생각해서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게 내년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며 “국회에서 원자력이나 재생이나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는 무성한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문제, 수요 측면도 같이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줄었지만 한국은 41%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만큼 쓰는 것은 과하다”며 “한전의 수입을 중립적으로 하더라도 지금의 소비 왜곡은 고치는 게 맞다”며 한전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해결하려고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 “올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에 한전과 발전사들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는 비상경영을 하고 있고 대략 2조5000억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실적 전망을 얘기하는 것은 상장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계속 비용을 줄이도록 아껴 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한전 재무구조에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점점 가면서 재생에너지 원가는 세계 어떤 나라의 연구결과에서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며 “배출 비용을 내가 부담하지 않고 국민이 전기할 때의 수익성과 배출당사자가 부담할 때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전원이 사회·환경 비용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보다 절대 싸지 않다는 의미다.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발전 자회사가 잘하는 것은 맡겨두는 게 맞다”면서도 “대규모 계획개발은 한전의 계통 운영 경험 등을 봐서 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사우디 원전사업에 대해 “당초보다 일정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사우디가 내년 말까지는 한 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ujim6326@

## 아임쇼핑 → 공영쇼핑 재탄생

### 공영홈쇼핑, TV·인터넷 등에 적용



공영홈쇼핑은 기존의 '아임쇼핑'을 '공영쇼핑'으로 바꾼다고 1일 밝혔다. 새 이름은 이날부터 전면 적용한다.

글자 개발에는 '안상수체'를 만든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 전 흥익대 교수가 재능 기부로 참여했다. 초성·중성·종성의 적절한 배치 및 여백 효과로 시각적 효과를 높이면서 세련미를 줬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판로로서의 공영쇼핑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디자인은 각 글자가 담긴 '4개의 사각형'과 각 글자(사각형) 사이에 놓인 '3개의 끈'이 핵심이다.

4개의 사각형은 판로가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및 농어업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폭넓게 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공영홈쇼핑이 TV홈쇼핑의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고 혁신 및 아이디어 상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조력자가 되겠다는 취지다.

3개의 끈은 국내 유일한 공공의 홈쇼핑으로서 '책임' '공정' '신뢰'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책임을 인식하고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영쇼핑이 되겠다는 의미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공영홈쇼핑은 1일부터 TV홈쇼핑 방송 화면과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쇼핑물 로고 등에 새 이름을 전면 적용한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공영홈쇼핑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상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는 협력사의 상생 동반자가 되기 위해 탄생했다”며 “새로운 디자인이 명확해진 기관 정체성을 기반으로 공영홈쇼핑이 제 역할을 다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절충교역 국내상담회 진행 중진공, 참여기업 7일까지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절충교역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위해 '절충교역 국내상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을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절충교역'이란 국외업체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할 때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이번 상담회는 방위사업청과 협업을 통해 이달 29~30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상담회에는 록히드 마틴과 GE 등 국외업체 5개사가 초청됐으며, 항공, 미사일 관련 바이어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생산 활동이 50% 이상이며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 또는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폐업 기업이거나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와 기존에 계약 혹은 거래 중인 품목이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김승호 기자

# 사립유치원 10곳 중 7곳, 내년 원생모집 일정 ‘불투명’

‘처음학교로’ 오픈… 참여율 저조

전국 국공립·사립 참여율 68.1% 국공립 99.9%… 사립 31% 그쳐 사립 최다 경기… 17.97% 불과 부산·대전·충북 10% 채 안돼



지난 31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립유치원 정문에 ‘학부모 긴급회의’를 알리는 안내지가 붙어 있다. 이 유치원은 감사 결과 논란이 일자 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폐원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전국 사립유치원 10명 중 3곳이 정부의 유치원 지원·추천·등록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유치원 10곳 중 7곳의 내년 원생 모집 일정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여 유치원 입학·보육 대란이 벌어질지 우려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31일 자정까지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 등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국공립유치원 8860곳 중 6037개 유치원이 등록을 완료해 참여율 68.1%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국공립유치원(4772곳, 99.9%) 대다수는 등록했지만 사립유치원은 1265곳(30.9%)이 등록하는데 그쳐 사립유치원 10곳 중 7곳은 처음학교로 참여가 불투명하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11월~12월 중

등록이 가능해 추가 등록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처음학교로 등록 기일을 지난 31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처음학교로 참여 의사가 있는 사립유치원은 기한을 지켰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되는 사립유치원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를 정부 재정 지원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처음학교로는 사립유치원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지원과 추천 등록일에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첫 도입했으나,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등록은 전년(2.7%, 115곳)과 비교해 약 12배 증가했다.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최다 경기도 17.97%에 불과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지역

역별 편차가 크다. 21개 사립유치원이 있는 제주도와 세종(3곳)의 경우 전체가 등록했고, 서울은 전체 633개 사립유치원 중 519곳(81.99%)이, 충남은 135곳 중 126곳(93.33%)이 등록해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106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191곳(17.97%)만 등록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고, 249개 사립유치원이 있는 인천(34.94%)도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광주(59.88%)가 비교적 높았지만,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사립유치원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부산(300곳)은 15곳(5.00%)만 참여했고, 전남(25.45%), 강원(24.30%), 경남(15.81%), 전북(12.42%), 대구(11.72%), 울산(11.30%), 경북(10.08%), 대전(6.59%), 충북(5.88%) 등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유치원 모집중지·폐원 19곳

31일 오후 17시30분을 기준으로 모집중지·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9곳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유치원 1곳이 모집중지됐고,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은 18곳(교육청 통보 6곳, 학부모 통보 12곳)이다.

모집중지나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소수에 그쳤지만, 해당 지역 유치원생 수용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치원 5곳이 폐원을 통보한 충남의 경우 인근 공·사립 유치원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해 일부 원아의 유치원 수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병설 유치원 확충하기로 했다.

회계 비리도 실명이 공개된 충북의 한 사립유치원은 31일 학부모들에게 원장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폐원을 통보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인근 공·사립 유치원에 분산 유치하고, 인근 공립학교 유류교실 이용을 검토 중이다.

사립유치원 3곳이 폐원 예정인 전북의 경우 인근 유치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중이고, 모집중지 1곳, 폐원 3곳이 통보된 경기도 역시 유치원생 수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처음학교로 입학희망 3순위까지 지원

1일 학부모 서비스를 개통하는 처음학교로는 6일까지 특수교육대상자와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을 대상으로 우선모집을 하고, 21일~26일까지 일반 원생 모집이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인사담당자 63% “말끝 흐리는 버릇 최악”

사람인, 인사담당자 623명 대상 설문

하반기 기업 채용의 면접 시즌을 앞둔 가운데,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면접에서 지원자의 본인도 모르는 버릇을 보고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사람인이 기업 623곳을 대상으로 ‘면접에서 지원자의 버릇에 대해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2.8%가 ‘감점을 준다’고 응답했다.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버릇(복수응답)

1위는 ▲말끝 흐리기(47.6%)였고, ▲시선 회피(39.1%)도 많았다. 이어 ▲코웃음 등 피식 웃기(28.9%) ▲은어 및 비속어 사용(25.8%) ▲잡은 한숨 쉬기(24.6%) ▲다리 떨기(22.5%) ▲허공 보거나 두리번거리기(19.9%) ▲구부정한 자세(18.2%)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이들 중 78%는 지원자의 버릇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지원자의 버릇이 합격에 당락을 미치는 비율은 평균 43%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중앙대 5일 100주년 기념관서 ‘접경영화제’ 개최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5일 오후 5시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310관) B501호에서 접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대 접경인문학 연구단(단장 차용구)이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의와 참

교양문화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인 ‘올리브 올리브(ALL LIVE OLIVE)’를 상영한다.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 관객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 건국대 구수민 교수, 에메랄드 출판사 최우수 논문상

건국대학교는 예술디자인대학 구수민 교수(사진)가 최근 에메랄드 출판사(Emerald Publishing)에서 출간하는 ‘Research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에 게재된 논문 중 2018 최우수 논문상(2018 Outstanding Paper Award)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구 교수는 논문에서 조선시대 지속가능한 의복 디자인 및 제작 방법을 재발견하고, 현대 패션 디자인에 접목해 우리 선조의 우수한 패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오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전공은 호텔관광대학원의 ▲호텔외식MBA ▲관광레저항공MBA와, 문화

창조대학원의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등 2개 대학원 6개 모집단위다. /한용수 기자

## 시사 이슈… 전공 적합성 질문 준비

인문계열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② 서울대 기술면접

고난이도 ‘제시문형 면접’은 기출 토대로 문제·내용 파악

대학 입시 특히 수시 입시에서 면접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서울대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에서는 면접성적이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2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평가 50%와 면접평가 50%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이다. 서류 및 면접 종합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도 면접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서류형’ 면접을 실시하는 반면 일반전형에서는 ‘제시문형’ 면접을 진행한다. 지원자의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토대로 진행하는 서류형 면접의 경우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인문계열의

자연계열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경우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질문도 자주 나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제, 외국인난민과 같은 이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반면 자연계열의 경우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묻는 질문이 자주 등장하므로 자신이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면접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일반전형에서는 제시문형 면접을 실시한다. 제시문형의 경우 전년도 기출문제가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계열의 경우 대개 3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된 문제를 출제하는데 제시문에 영어 및 한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문학작품, 도표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므로 제시문에 대한 독해 능력과 논리적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창의적 사고력까지 보여줄 수 있

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과 과학 문제가 출제된다.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반을 둔 문제가 출제되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의 개념 학습과 주관식 문제 풀이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의과대학, 치의학과, 수의과대학과 같은 의학계열의 경우 지역균형에서는 서류형 면접을, 일반전형에서는 MMI 면접을 실시한다. MMI형 면접은 한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여러 번의 면접을 실시하는 형태로 대개는 지원자가 면접실을 이동하면서 면접실마다 각기 다른 내용의 면접을 치른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총 5회의 면접을 실시하는데 4번의 상황면접과 1번의 서류형면접으로 구성된다. 상황면접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는 제시문을 주고 상황에 대한 논리적 분석능력과 합리적 대응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의학이나 자연과학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 4번의 상황면접에서 각 10분 내외, 서류형면접에서 20분 내외가 소요되므로 총 60분 내외에 걸쳐 면접이 진행된다.

## 위메프, 신입 MD 공채… 19일까지 접수

올 들어 매 분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 위메프가 4분기 MD 직군 신입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신입 및 관련 경력 1년 미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1일~19일이다. 위메프 채용공고 페이지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위메프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신입 MD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의 입사 예정일은 12월 10일이다. 약 3개월간 직무 교육 및 실무 멘토링 과정을 거쳐 배치부서가 결정된다.

위메프 MD는 영업(상품 소싱) 및 기획, 판매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좋은 상품을 입점시키기 위해 파트너사에 직접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 콜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위메프 관계자는 “MD는 영업을 기반



으로 하는 직무로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열정 있는 지원자를 찾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기업 중 가장 먼저 포괄 임금을 폐지한 위메프는 직원들의 워라벨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최고의 목재인 느릅나무를 엄선하여  
현대적이면서도 우리 정서에 맞게 디자인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원목가구입니다.

**우리결 자연가구**



**전국 대리점 모집**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4 백상빌딩 6F  
T. 02-3665-1731 / F. 02-3665-3243  
WWW.WOORIGGOL.COM

- ▷ 오래 사용할수록 손맛을 더하는 친환경 가구입니다.
- ▷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어줍니다.
- ▷ 제품의 전후좌우 내부까지 마감처리가 뛰어납니다.
- ▷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건강한 실내공간을 만들어줍니다.
- ▷ 느릅나무 소재의 탁월성으로 자연스러운 무늬결과 고풍스러움을 연출합니다.



# 南北 평화시대, 외국인 관광확대 적기



**독자 투고**  
**정명진** 코스모진 대표

27년만에 극적으로 성사된 남북한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큰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전쟁의 공포로 휩싸였던 한반도는 이제 남, 북 정상이 두 손을 마주 잡고 분단경계선을 넘나드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선사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핑크빛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임기초기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화끈한 말이 나올 것이라고 감히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 글로벌 미디어들도 이 놀랍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농칠세라 앞다투어 남북한의 화해 무드와 경제 협력 기사를 톱뉴스로 실어나르고 있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런 극적인 관계 변화는 국내 각 산업 분야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 시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인바운드 관광 업계는 싸늘한 남북 관계로 좀처럼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우리는 분단 65년 만에 불어온 평화의 훈풍을 타고 새로운 기회 속에 놓여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지금, 외국인 관광 시장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최적기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국내 관광 산업이 한류, K-패션, K-POP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평화’라는 키워드를 더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 만들어 낼 찬스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잡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도 어렵사리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내 관광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치고 외국인들이 오고 싶게 만드는 국가 브랜딩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앞장서 신규 시장 개척 및 고품격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차별되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전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DMZ, JSA 등 비무장 지대를 분단의 아픔이 아닌 평화를 상징하는 관광지로 새롭게 재포지셔닝하고, 특별한 관광 요소를 만들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안보관광은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수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해왔고, 지금도 방한 외국인들에게 인기 1순위로 꼽힐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안보관광은 비단 판

문점 일대와 같은 곳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신의주와 서울을 잇는 평화 노선으로 새로운 가치를 조망 받고 있는 경의선숲길, 지하병커의 옛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미술관의 역할을 함께 하도록 인기를 끌고 있는 여의도 벚꽃 등 도심 곳곳의 장소들도 새로운 스토리를 담아내며 안보 관광지 중 하나로 몸값을 높이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경의선숲길에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시점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도보다리 회담이 재현되기도 해 국내외인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외국인 관광 시장 확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서울권 외에도, 대한민국의 전통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지자체 중심의 관광지도 외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내 관광을 체험하기 위해 밀려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비한 충분한 기반 시설 확충도 기본이다.

모처럼만의 남북간 화해 무드는 한국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안겨줬다.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 이 결정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모쪼록 대한민국도 독일의 베를린 장벽처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평화의 대명사이자 안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EB하나銀, 금융공모전 3년 연속 ‘금융감독원장상’** 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주관 ‘제13회 금융공모전’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인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우수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하나드림캠프’를 통해 지방 곳곳의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직업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했다. /KEB하나은행



**롯데제과, 경북 봉화에 ‘스위트홈’ 6호점 건립** 롯데제과는 지난달 31일 지역아동센터 ‘롯데제과 스위트홈(Sweet Home)’ 6호점을 건립했다고 1일 밝혔다. 스위트홈 6호점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위치, 총부지 5106㎡(1544평)에 건물 198㎡(60평), 외부공간 330㎡(100평) 규모로 건립됐다. /롯데제과



**SPC그룹, 인천공항공사 등과 ‘장애일 일자리 지원’ 맞손** SPC그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푸르메재단과 ‘장애일 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식품용 컨테이너 선사업무를 펼치고 있는 SPC그룹이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SPC그룹 파리로크라상 권인태 대표이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푸르메재단 강지원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이랜드윌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수상** 이랜드윌드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2018년 동반성장 Festival’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오른쪽부터 남승일 이랜드윌드 R&D 선임연구소 연구소장과 임형성(㈜석경에이티 대표). /이랜드윌드

## 하현희 부회장, 강원도 산골마을 이장님 됐다

**LG유플러스**  
운학1리에 ICT 기반시설 제공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강원도 산골 마을 이장으로 위촉됐다.

LG유플러스는 1일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1리에서 하 부회장의 명예 이장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 부회장과 최명서 영월군수,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안중선 이장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 부회장은 운학1리에 ICT 기반 시설



하현희 부회장(가운데)이 운학1리에서 마을 창고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을 제공하면서 명예 이장으로 추대됐다. 작년 10월 농협중앙회와 함께 운학1리를 ICT 융복합사업 시범마을 1호로 선정하

고, U+마을방송과 방범용 CCTV, 마을회관에는 U+ TV 서비스도 설치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LG복지재단 화염속 3살 아이 구한 흥천소방대원 6명 등 ‘LG의인상’ 수여

LG복지재단은 최근 화재로 인한 격렬한 열기 속에서 3살 아이를 구한 김인수(55) 소방위 등 소방대원 6명과 뇌출혈로 쓰러진 남성을 구한 황현희(17), 민세은(13) 양에게 ‘LG의인상’을 수여한다고 1일 밝혔다.

강원도 흥천소방서 김인수 소방위를



흥천소방서 소방대원들. /LG복지재단

비슷한 소방대원 6명은 지난달 28일 흥천읍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난 건물 속에서 어린아이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의 보호장비인 안전모가 열기로 녹아 내렸고, 화상을 입기도 했다.

또, 황현희 양과 민세은 양은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에서 시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한 남성이 길에서의 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버스에서 내려 출혈이 심한 남성을 주변에 있던 시민과 함께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구서윤기자 yuni2514@

###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행정정책과장 김현숙
- ◆통일부 ◇임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교류부장 비서관 황준호 ◇전보 △통일교육원 교육협력부장 고위공무원단 나급 박형일
- ◆고려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김재욱 △보건과학대학장 직무대행 고영학 △기획예산처장 이영재 △감사실장 직무대행 신호영 △디자인혁신센터장 권민성

- ◆인천대학교 ◇2급 승진 △고덕봉 △조천순 ◇3급 승진 △김종호 △이광희 △황선용 ◇3급 전보 △경영대학 최형우 △교수학습지원팀장 최재웅 △인천대학발전기금 김형기 △글로벌대학원 I NU어학센터 김광수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대의협력처장 주현규
- ◆환경닷컴 △뉴스국장 박수진

- ▲김두근(전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씨 별세, 종진 씨 부친상, 구성희(가야메디칼센터원장)·강병화(주빌리치과원장) 씨 장인상 = 10월 31일 오후 1시,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월 3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 ▲장석환 씨 별세, 장재원(익주무역 대표)씨 부친상, 김진숙 씨 시부상, 장민성(SBS 기자)·장민홍(루닛 이사)씨 조부상, 박세희(문화일보 기자)씨 시조부상 = 1일 0시 20분, 전북 익산 원광대학병원장례식장 3층 306호, 발인 3일 오전 10시, 063-859-2310

### 부음

## 동양생명 부사장에 ABL생명 출신 김수봉



동양생명은 오는 16일자로 김수봉 전 ABL생명 부사장(사진)을 부사장으로 정식 선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김수봉 부사장은 보험개발원장, ABL생명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동양생명은 “신임 김 부사장은 오랜 기간 금융감독 기관에 종사하며 보험 경영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며 “한·중 양국의 문화와 전략을 잘 융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 이재환 삼익전자공업 대표 10월의 자랑스러운 中企人



전광판을 제조하는 삼익전자공업(주) 이재환 대표(사진)가 ‘2018년 10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됐다.

이재환대표는 1969년 삼익전자공업을 창업해 약 50년 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등 국내에서 개최된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에 전광판을 제작·설치해온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김승호 기자



# 대목이 왔다... 편의점, 실속과 재미로 승부수 던져

## 빼빼로데이 D-9

**세븐일레븐** 재치있는 문구 패키지  
**CU** DIY 패키지·페레로부케 등 선봬  
**GS25** 유병재빼빼로 등 차별화  
**이마트24** 반값 할인 등 다양한 혜택

편의점 업계에서 '빼빼로데이'(11월 11일)는 반가운 존재다. '빼빼로 특수'로 봐도 무방할 만큼 관련 상품의 매출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들이 오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관련 제품 출시 소식을 잇따라 발표했다.

빼빼로데이는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다른 기념일보다 관련 제품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CU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판매된 빼빼로 매출 중 27.1%가 빼빼로데이 기간(11월 10일~12일)에 발생했다. 월별로 봐도 11월 빼빼로의 매출 지수는 급상승한다. 평소 CU의 쿠키/비스킷 카테고리에서 빼빼로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4.5%에 불과했다. 그러나 11월에는 비중이 75.7%까지 뛰었다.

빼빼로데이 당일의 빼빼로 판매량은 평소보다 30배 가량 높았다. 단일 품목으로는 이례적으로 과자류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스택(새우깡 등)의 전체 매출을 뛰어넘었다.

올해의 빼빼로 트렌드는 '알뜰' 그리고 '이색'이다. 고가의 기획 상품에 주력하던



GS25는 오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1+1 파격 할인을 진행하고 다양한 차별화 세트를 선보인다(왼쪽). 이마트24가 오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편의점들은 올해 들어 일반 상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확대했다. 빼빼로데이가 연인 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등이 다 함께 즐기는 기념일로 바뀐 데 따른 변화다.

실제, 세븐일레븐의 빼빼로데이 상품군별 매출은 2015년 54.1%에서 2016년 59.1%, 2017년 59.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마트24에서도 전체 매출 중 2000원 미만의 빼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6년 51%, 2017년 53%다. 이에 따라 세븐일레븐은 올해 일반 상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한층 다양하게 마련했다. 특히, 빼빼로를 다량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일반 중저가 상품을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CU도 실속형 제품에 초점을 맞췄다. CU의 DIY 리본 2종은 빼빼로 중 가장 인기

높은 초코, 누드, 아몬드 빼빼로만으로 구성돼 가성비 높다. DIY 투명케이스 2종의 경우, 투명 포장을 사용해 소비자들 이 구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안심 구매를 돕는다.

GS25와 이마트24는 할인에 초점을 맞췄다. GS25는 빼빼로데이와 수능을 연계한 1+1, 파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5배 가량 늘어난 상품에 1+1을 적용한다.

온라인, 모바일 쇼핑물과도 손 잡았다. G마켓, 옥션, G9에서 빼빼로 1만원 상품권을 11%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롯데 빼빼로 1500 상품을 50% 할인 판매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오는 5일~11일까지 빼빼로 모바일 쿠폰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GS25는 또 결제 수단을 통한 할인이나 제휴 카드 포인트 캐시백 증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이마트24도 빼빼로 8종을 대상으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8일까지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9일~10일까지 BC카드를 이용해 빼빼로데이 행사 제품을 3개 이상 구매할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편의점들은 실속형 제품, 할인 이벤트와 함께 각양각색의 이색 패키지와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재미 요소를 더한 차별화된 상품들이 준비됐다.

이마트24는 빼빼로데이 한정판 '19禁 맥주빼빼로'를 선보인다. 이마트24의 차별화 상품인 벨기에 맥주로 빼빼로를 형상화한 제품이다. 필스너 3캔과 바이젠 1캔으로

구성됐다. 또 업계 최초로 빼빼로데이 행사 상품 구매 고객에 한해 환경부 인증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친환경 프로모션 '에스 러브 노 플라스틱(YES LOVE NO PLASTIC)'을 진행한다.

CU는 DIY 해시태그, DIY 핸드백 등 패키지에 재치있는 이미지를 더한 상품을 내놨다. 액션토끼를 패키지에 디자인한 상품과 포키의 다양한 맛으로 구성된 포키세트, 페레로로쉐로 만든 페레로부케 등도 함께 선보인다.

세븐일레븐은 패키지에 재치있는 문구를 담았다. '오늘 먹을 빼빼로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커플전용', '호녀등극' 등의 문구가 적용됐다. 또 빼빼로 모양의 립밤 '빼빼립', '빼빼로 아이브로우'를 출시, 실용적인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세븐일레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상품도 준비됐다. 겨울철 인기 간식인 고구마 맛을 담은 '롯데 빼빼로 더블딤 고구마'는 세븐일레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에서만 단독으로 판매된다.

GS25는 차별화된 세트를 15만개 물량으로 준비했다. 방송인 유병재의 얼굴을 적용한 패키지에 포토카드까지 더했다. 또 10~20대에게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 키르시, 비온드클로젯과 손잡고 빼빼로세트를 선보인다.

반려견을 위한 '반려견 선물세트'도 3000개 한정 판매한다. 치즈달걀비, 치킨파베기검, 사사미 스택을 한 세트에 묶어 낱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Homeplus 홈플러스, 21년 만에 새 CI

'플러스 심볼' 더해 채움의 의미 담아  
브랜드 슬로건으로 3S 유통혁신 이어

홈플러스는 창사 21년 만에 새 CI(Corporate Identity)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고객 소비 패턴과 유통 환경 변화에 발맞춰 회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고객에게 가장 현명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채널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새 CI에 담았다. 지난 경험과 노하우에 도전적인 비전을 더해 새로운 20년을 맞는다는 의미다.

홈플러스의 새 CI는 기존 '레드' 컬러의 유산을 살리고, '플러스'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플러스 심볼'의 탄생이다. 심볼은 각각 가로 세로로 긴 두 개의 타원, 또는 두 개의 하트가 서로 겹쳐 있는 이미지다. 고객의 쇼핑 혜택은 높이고, 선택의 폭은 넓혀 준다는 의미, 오프라인 플랫폼 위에 모바일을 더해 오픈 채널을 완성한다는 의미, 그리고 다양한 직원의 정성과 서비스를 모아 고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운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존 브랜드 로고에서 밑줄은 과감히 생략해 단절성을 없앴다.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업무와 사고의 경계를 허물며 진화하는 확장성을 강조했다. 서체 디자인도 두께, 간격, 획의 흐름을 보다 세련된 형태로 정제했다.

브랜드 슬로건은 '지금까지 없던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삼고, 보다 쉽고(Simple), 현명한(Smart) 쇼핑으로 고객을 미소(Smile) 짓게 만드는 3S 유통혁신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달부터 새 CI를 바탕으로 홈플러스, 스페셜, 익스프레스, 365플러스, 문화센터, 몽블랑제 등 각 사업에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일성 있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CI 변경은 향후 홈플러스의 발걸음을 예고한다. 임일순 사장 취임 후 1년간 회사가 나아갈 새 경영 지표의 완성과 그 초기 실행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공격적 투자와 함께 전략 구현에 속도를 높여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앞으로 기존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의 경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지역 커뮤니티 장터와 종합쇼핑몰의 경계를 넘어, 고객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먼저 다가서는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사업도 새 판을 짜다. 경쟁사와 달리 전국 각 점포가 지역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의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점포 내 피킹 전용공간(Fulfillment Center)을 확대, 오픈 채널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벽을 허물고 온-오프라인 모든 고객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신선한 상품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다.

지역밀착형 커뮤니티몰 '코너스'(CORNERS)도 곧 선보인다. 몰 임대매장에 다양한 편의, 쇼핑 시설은 물론 지역 주민이 모여 플라마켓이나 풋살을 즐기는 커뮤니티 공간도 갖춰, 슬리퍼를 신고 드나드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으로 꾸민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임일순 사장은 "늘 앞서 움직이는 고객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 없이 고객, 협력사, 직원 모두의 생활의 가치를 높이고, 진성(眞成)의 감동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비비안, 보온성 강화한 내복 신상품 출시

비비안은 겨울 내의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비비안의 신상품 '비비안 모달 캐시미어 남녀내복'은 고급 보온 소재인 캐시미어와 부드러운 모달 섬유로 제작됐다. 또 '비비안 텐셀을 남녀내

복'은 착용감이 좋은 섬유 텐셀과 전통적인 보온 소재인 울이 섞였다.

기능성 원단 파이로웜을 적용한 남녀 내의도 출시됐다. 파이로웜은 섬유조직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는 기능성 원단

이다. 이 제품은 두께는 얇지만 탁월한 보온성과 가벼운 착용감을 제공한다.

비비안은 흡습발열 기능이 있는 원단에 두터운 기모 안감을 더한 남녀 내의도 선보인다. 이 제품은 피부에서 미세하게 방출되는 수분을 흡수해 열을 내는 기능을 갖고 있어 겨울철 외부 활동이 많은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김민서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 오픈 기념행사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린 현대백화점 면세점 오픈 세리모니에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내외빈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윤신 한국도심공항 사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윤이근 서울세관장, 윤아 현대백화점면세점 모델, 정해인 현대백화점면세점 모델, 권봉주 파르나스몰 사장, 황해연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이사.

/손진영 기자 son@

## 필요한만큼 잘라먹는 '테이스티 블록치즈'

서울유유, 국내 최초 블록형태 판매

서울유유협동조합은 다양한 레시피에 활용 가능한 '테이스티 블록치즈'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테이스티 블록치즈'는 해외에서는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최초로 판매되는 블록형태의 가공 치즈다. 체다치즈와 고다치즈를 가장 맛있는 비율로 배합해 치즈의 풍부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벽돌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덩어리로 된 블록(block)형태의 치즈로 기존의 슬라이스 타입의 치즈와는 다르게 필요한 양만큼 잘라내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에피타이저나 토스트,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



이 가능해 누구나 부담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정하민 서울유유협동조합 가공품사업 본부장은 "치즈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소비자들이 더욱 손쉽게 치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요리에 치즈 활용은 기본, 간식 및 술안주 등 치즈를 선호하는 많은 이들에게 '테이스티 블록치즈'는 활용도가 높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박민영 기자 parkiu7854@

# 벤처천억기업, 일자리·매출·R&D 늘려 허리역할 '톡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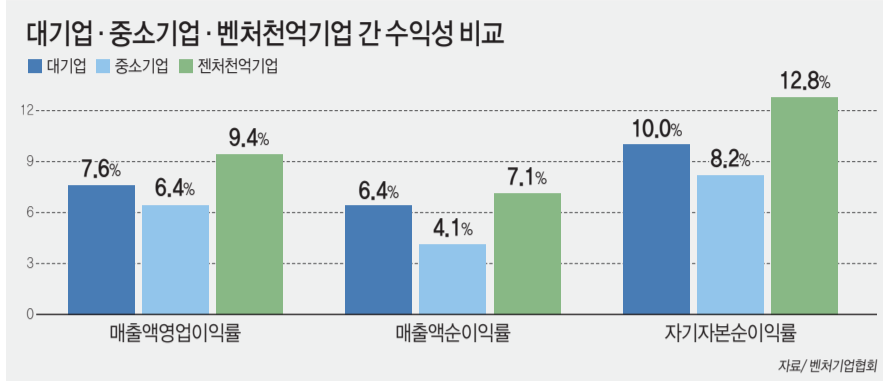
(매출 1천억원)

## 벤처천억기업 기념행사

지난해 총 572곳으로 증가  
전체종사자 수도 4% 늘어  
“스타트업에 꿈과 희망을”

2011년에 창업한 경기 화성의 디엘티. TV나 PC모니터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2016년 당시 60명이던 임직원이 지난해엔 무려 2배가 넘는 124명으로 늘었다. 디엘티는 직영 판매방식보다 흡소품, 이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고 해외시장을 공략한 결과 914억원(2016년)이던 매출이 1011억원(2017년)으로 '1천억'을 처음 돌파했다.

2012년 당시 1000억원 매출을 넘어선 경기 성남의 모트렉스.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을 생산하는 모트렉스는 관련 제품을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40여개 차종에 112개 모델을 공



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2095억원, 임직원수 270명이던 이 회사는 37%가 연구개발(R&D) 인력으로 관련 분야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 1000억원이 넘는 '벤처천억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증가와 함께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513곳이었던 벤처천억기업은 지난해 572곳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1일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17 벤처천억기업'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준학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의 성공 모델이자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인 벤처천억기업이야말로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갈 선도자로, 이들 기업이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꿈과 희망을 달라"

고 당부하고 "앞으로 벤처천억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벤처천억기업 조사는 2005년부터 시작했다. 당시엔 68곳만이 '천억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천억벤처는 453개(2013년)→460개(2014년)→474개(2015년)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기준 572곳의 벤처천억기업의 총 매출은 130조원으로 전년의 112조원보다 16.4%나 늘었다. 이들의 총매출은 삼성, 현대차, SK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출이 1조원을 넘는 기업도 11곳으로 1년전보다 4곳이 늘었다. 네이버, 코웨이, 엔씨소프트, 유라코퍼레이션, 에스에프에이, 휴맥스, 성우하이텍, 네오플, 토타, 서울반도체가 그들이다.

벤처천억기업들은 성장성, 고용창출, R&D 투자 등 여러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대비 2017년 현재 평균 매출액

은 전년 대비 15.8% 늘었다.

특히 3년 연속으로 20% 이상 매출성장을 기록한 소위 '가젤형 벤처천억기업'은 28개에서 32개로 14.3% 증가했다.

전체 종사자수도 20만 7293명에서 21만 5862명으로 4.1%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368.8명에서 384.1명으로 15.3명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율은 2.5%로 1.5%인 대기업, 0.7%인 중소기업을 훌쩍 넘어섰다.

홍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기술변화 대응 속도와 유연성 면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 벤처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선도할 주역임을 나타내는 방증"이라며 "벤처천억기업 하나하나가 앞으로 성장할 잠재 유니콘으로 중기부는 이들 기업의 강력한 후원자가 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코웨이 이혜선 대표이사(왼쪽 세번째)가 직원들과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 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코웨이

## 코웨이 정수기·공기청정기 서비스지수 '1위'

코웨이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8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AS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는 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한 서비스 품질 측정 모델이다.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구매해 이용해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코웨이는 정수기 AS 부문에서 2002년 처음으로 1위에 뽑힌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2회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다. 코웨이는 올해 처음 신설된 공기청정기 AS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코웨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AS 부문에서 각각 75.2점, 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서비스랩 운영, 코디온 서비스 시행, 서비스 책임제 도입 등의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코웨이는 지난 5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험과 기본 좋은 경험을 설계하는 혁신 공간 '서비스랩'을 새롭게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랩은 '고객의 시선으로 진실되게 바라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고객 경험을 혁신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한 코웨이는 고객들이 서비스 제공 전·후의 제품 점검 현황을 모바일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코디온(Cody-On)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동아제약·박상현 백혈병 어린이 위한 '2억' 기부

(프로골퍼)

동아제약은 1일 박상현(35·동아제약) 프로골프 선수와 함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방문해 소아암 어린이 치료를 위한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과 오연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박상현 프로골프 선수 등이 참석했다.

동아제약은 2015년부터 박상현 선수를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 박상현 선수는 한국프로골프(KPGA)투어에서 시즌 3승을 올리며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박상

현 선수는 지난 9월 막을 내린 신한동해 오픈에서 우승했을 때 그 자리에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 환자를 위해 우승상금 중 1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후원사인 동아제약도 박상현 선수의 기부 소식을 듣고 기부에 동참하며 힘을 보탤다.

기부금 2억원은 박상현 선수가 기부한 1억원에 동아제약이 동일한 금액의 기부금을 출연하는 1:1 매칭 방식으로 마련됐다. 기부금은 소아암 어린이 10명의 치료비에 쓰일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 주가안정 위해 자사주 45만주·155만주 매입

오늘부터 장내매수로 취득 예정  
기업가치 보존해 책임경영 지속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금일 이사회를 개최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의 취득 예정 주식은 총 45만주, 978억7500만원 규모다. 셀트리온헬

스케어의 취득 예정 주식은 987억3500만원 규모, 총 155만 주다. 각 사는 2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경영진은 최근 주식 시장 약세 및 주가 하락에 따라,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연내 자사주 매입과 함께 약 495억 원 규모의 우리 사주 매입도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회사의 본질적 가치 및 성장성에 대한 확신은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기업가치 보존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JW중의제약 "황금돼지해 함께할 인재 찾습니다"

JW그룹이 2019년 황금돼지해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JW그룹은 '2018년 하반기 정기공채'를 실시하고 공채 105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부문은 △의약품, 미용성형, 의료기기, 진단·영상장비 등 영업·서비스기술 △경영관리, 재무관리 등 일반관리 △신입약사 직군이며 이번 달 14일까지 JW그룹 채용 홈페이지(recruit.jw-group.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영업 분야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기술 분야는 전기·전자, 의공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에 한해 채용하며 신입약사의 경우 약사자격증 소지자 및 예정자를 선발한다. 장애인과 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한다.

서류전형은 통과하면 인공지능(AI)

인적성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등을 거치게 된다. 특히 이번 정기공채에서는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현장 실무면접을 도입했다. 전북, 전남, 강원 등 지역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선발된 신입사원은 그룹 공통 채용 후 직무 적합성을 고려해 지주사인 JW홀딩스를 비롯한 JW중의제약, JW신약, JW메디칼, JW바이오사이언스 등 회사에 배치된다.

회사 관계자는 "직무 적합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AI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전형 단계에서 보다 다각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찾아가는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등 우수한 인재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 '소방관 처우 개선' 3억 기탁

에이스침대는 에이스경남 안유수 이사장(에이스침대 회장·사진)이 지난달 28일 강원도 홍천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3억원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는 화염과 연기가 분출돼 진입조차 어려운 '최성기' 상태였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고군분투로 집 안에 혼자 있던 아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다.

안 이사장은 "기사를 통해 1000도 안팎의 화마 속에서 3살 아이를 구조해 낸 소방대원의 까맣게 타버린 소방 헬멧을 보게 됐다"며 "헬멧이 녹아 내릴 정도로 뜨거운 불길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소방관의 사명감에 감명받아 기부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안 이사장은 앞서 부산 소방관 치료비와 사기진작 격려금, 순직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에도 각각 3억원씩 총 12억 원을 기탁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 49살 된 삼성, '창업 뜻' 기리는 사랑나눔 봉사

## 방한용품 세트 전달 등 계열사별 나눔활동

“삼성전자가 1969년 창립 이래 수많은 어려움을 도전과 혁신으로 극복하며 세계적인 IT 기업이 된 것은 임직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이 창립일을 기념해 “올 한 해는 글로벌 무역전쟁과 5G·AI 기술주 도권 확보 경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경쟁의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남은 한 해도 최선을 다하고, 새롭고 힘찬 에너지로 내년을 준비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1일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김기남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9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사장단과 임직원들은 '사회에 공헌한다'는 창업의 뜻을 기리는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목도리, 털모자, 무릎담요, 친환경 핫팩 파



1일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창립 49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이 '사회에 공헌한다'는 창업의 뜻을 기리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방한용품을 준비하는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삼성전자

우치 등으로 구성된 500개의 방한용품 세트는 임직원들의 응원이 담긴 카드와 함께 소외된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도 1일로 각각 창립 45주년과 6주년을 맞아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삼성전기는 이미 10월 한달 간 해외법인과 함께 자원봉사 대축제를 진행했으며, 2일에는 대표이사과 임직원들이 임직원 기부금으로 조성된 수원의 청소년드림센터를 찾아 케이크를 만들고 진로 고민을 상담해 주는 나눔 활동을 벌인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SKB 프로농구 VR로 중계

(옥수수)

SK브로드밴드는 자사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에서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SK나이트 서울 잠실 홈경기 시즌 전체를 가상현실(VR)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1일 밝혔다.

옥수수는 지난달 13일 SK나이트 홈경기에서 VR 중계를 선보인 이후, VR 중계를 SK나이트 홈경기 시즌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옥수수 VR 중계는 양쪽 골대 밑과 센터라

인에 위치한 180도 광각 VR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 고객들은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화면을 즐길 수 있다. 특히 VR기기(HMD)없이도 스마트폰 화면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 한 화면에서 선수별 득점을 확인 하면서 농구를 관람할 수 있다.

옥수수 측은 현재 SK나이트 홈 경기장에 옥수수 VR 체험존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를 통해 KB L SKT 5GX 프로농구 VR 생중계를 시청하며 채팅에 참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SK나



관람객이 VR로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이츠 홈경기 입장권, 버거킹 와퍼세트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현대차의 뒤늦은 후회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정یشن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 AI 등 미래 신기술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단시간에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4년 당시 경영환경이 어렵다면서 한전 부지 매입에 10조원이란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어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의 파업 등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현대차그룹에 대한 이미지 하락을 불러왔고, 결국 글로벌 시장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사상 최악 수준의 '어닝쇼크'를 기록했으며 기아차 역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반면 중국의 지리자동차는 비슷한 시기 9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빠른 시장 트렌드 대응에 투자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 지리자동차는 현대차그룹에 비해 기술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지리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지리자동차는 중국시장에서 124만8000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중국 전체 6위, 토종 자동차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무려 59%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 매입이 아닌 이탈리아와 미국 합작자동차 기업 피아트크라이슬러(FCA)나 볼보 등을 인수했다면 현재의 위기를 맞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정یشن 부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와 자율주행, 친환경차에 대한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어 현대차그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ysw@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11월 2일 (음 9월 25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마른논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순조롭게 해결. 60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나 실속은 별로 없어 아쉽다. 72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84년생 발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 소** 49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61년생 가족은 서로만 들어 가는 것이다. 73년생 자식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른다. 85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간직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 호랑이** 50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지 마라. 62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 74년생 기회가 주어지지도 망설이기가 놓칠 수 있다. 86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 토끼** 51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63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매사 마음먹기 나름. 75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87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을 하지 마라.
- 용** 52년생 이웃과의 거래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64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쩌겠나. 76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8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 뱀** 53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65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성공으로 측정해야. 77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은 참고 견디라. 89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는 법.

- 말** 54년생 두드러져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66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여겨라. 78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90년생 격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 양** 55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67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주어진다. 79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91년생 재추진이 필요한 날이다.
- 원숭이** 56년생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 68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 사용. 80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92년생 지나간 인연이 다시 찾아오니 머리가 혼란스럽다.
- 닭** 57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은 참고 견디라. 69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제 거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81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93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 개** 58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이다. 70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 82년생 보라색 옷으로 기분전환을 해 보자. 94년생 여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면 행운.
- 돼지** 5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71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83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전진. 95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



## 김상회의四季

### 인생길의 목표를 정하라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일도 다르고 즐기는 음식 역시 다르다. 누구는 공부에 뛰어나고 누구는 기술을 잘 다룬다. 누군가는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누군가는 재물을 모으는데 재주가 있다. 서로 살아가는 형태도 다르고 성공하는 방식도 다르다. 또한 성공을 하더라도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다. 일이 풀리는 때가 다르고 꽃이 피어나는 시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흔하게 한다. “저 사람은 큰집 샀는데...” “친구는 벌써 부장인데...” “옆집 아이는 취직했는데...” 사람인 이상 부러움의 시샘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불만 그 자체에 깊이 빠져들면 오히려 큰 손해를 부른다.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 사주에 있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간다고 하자. 운전을 빠르게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도착한다. 초보 운전자가 그런 사람이 부럽다고 고속도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 사고가 나서 목격자는 고사하고 병원으로 가게 된다. 체력 좋은 사람은 부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을 할 것이다. 몸 약한 사람이 그걸 버려야 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운전한다면 목적지에 가기도 전에 지쳐 쓰러질 게 뻔하다. 자기 체력이 약하다면 중간 중간 쉬면서 가는 게 맞는 방법이다. 살아가는 속도와 방식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성공에 도달하는 시기도 서로 달라진다. 남이 잘 간다고 운세가 죽어있는 시기에 일을 크게 벌이면 더 망하게 된다. 쉬면서 내공을 쌓고 있으면 운세가 살아나는 때가 온다. 그때가 모아놓은 에너지를 쏟아 낼 때이다. 남이 나보다 더 빨리 성공한다고 남을 시샘하느라 속 썩지 말고 묵묵히 발걸음을 내딛으면 나에게 맞는 시기가 온다. 스스로 내공을 키우고 운세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면 바라던 그 순간이 분명히 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8			4			3
	5	7		3		2	9	
			1		4	8	2	
				7		6		
			3		9	7	6	
	2	9		1		3	4	
	8	6				9		1
1								

2								
9		3	2	5				4
5					9	6		1
				4	6	2		3
				5	1	3		9
8						1	3	7
3		4	9	7				8
1								

스도쿠 정답								
2	8	5	9	6	7	4	1	3
1	4	6	2	7	5	9	8	3
9	7	1	3	8	6	2	5	4
7	9	4	6	2	5	1	8	3
5	1	9	8	7	3	6	2	4
6	2	8	7	5	1	9	4	3
8	6	2	1	7	4	5	9	3
3	5	7	9	4	8	6	2	1
4	3	9	8	6	2	1	5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1721-9851, 9826 /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407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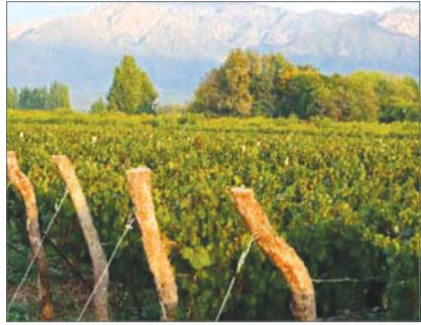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175호

# ‘카이켄’ 칠레의 영혼, 아르헨티나에 닿다

(야생 거위)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위치한 비스타발(Vistalba) 포도밭. 고도 1000m가 넘는 이곳에 1910년에 심어진 고목들로 카이켄 ‘마이’가 만들어진다.

안데스 산맥의 양편인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오가며 사는 야생 거위가 있다. 칠레 원주민어로 ‘카이켄(caiquen)’이라 부른다.

카이켄을 똑 닮은 와인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와인으로 유명한 칠레 와이너리 몬테스(Montes)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 멘도자 지역에서 만들어서다. 와인 이름도 카이켄(KAIKEN)이다. 발음하기 쉽게 철자만 약간 바꿨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안데스 산맥을 끼고 나란히 붙어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은 다르다. 칠레가 태평양 연안을 바탕으로 적당한 강수량과 온화한 기후인 반면 아르헨티나는 덥고 건조하다. 이런 멘도자의 개성이 아우렐리오 몬테스 회장을 거위 카이켄처럼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오가게 만들었다.

몬테스는 저자가 주류였던 칠레에서 처음으로 프리미엄 와인을 내세워 성공했던 것처럼 2001년 카이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아르헨티나 최고의 와인을 목표로 했다.

몬테스의 그간 쌓은 기술력과 아르헨티나의 개성이 만나 만들어낸 와인이 바

로 카이켄의 ‘마이(Mai)’다. 땅의 개성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포도 품종을 실제 재배하고 실험하는 데에 10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한 끝에야 생산이 됐다.

마이는 ‘첫번째(first)’를 뜻하는 원주민의 방언이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름에 그대로 담았다.

지난달 31일 한국을 찾은 토마스 마르코네티 카이켄 수출담당 매니저는 “마이는 수령이 100년 이상된 고목에서 포도를 수확해 응집력과 집중력이 매우 뛰어난 와인”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는 포도품종 중 말베코로 만들었다. 감감한 자줏빛에 향은 과일 폭탄이 터지지만 부담스럽지 않다. 매끈하면서 고상하다. 100년 고목의 기다림만큼 여유도 길다.

화이트 와인 ‘카이켄 테루아 토론테스’는 하늘과 맞닿은 와인이다. 무려 해발고도 2000m 이상인 포도밭에서 만들



(왼쪽부터)마이, 카이켄 테루아 토론테스, 카이켄 울트라 카버네 소비뇽.

어진다. 토론테스는 아르헨티나 토착 품종이다. 달달한 맛을 내는 모스카토 품종에서 뺏어났지만 토론테스는 달지 않다. 풍부한 꽃향기에 깔끔한 산미로 식전주로 마시기 좋다.

카이켄에서 몬테스의 알파 시리즈와 같은 등급은 울트라 시리즈다.

‘카이켄 울트라 카버네 소비뇽’은 그동안 가졌던 신세계 카버네 소비뇽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준다. 단순하고 진한 신세계 카버네 소비뇽이 아니라 복합적인 향에 부드러운 여성적인 카버네 소비뇽이다.

카이켄의 올해 포도 수확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시즌은 여느 때보다 건조했고, 온도도 평균을 웃돌았다. 수확량도 최고치였다. 다른 어느 때보다 최고로 응축된 맛과 향의 ‘마이’를 기대해도 좋다는 얘기다.



자료 협조

# “올 겨울, 블랙은 가라!” 컬러풀 롱패딩이 대세

검정색 외 제품 판매량 40% 돌파  
절개선·폴딩 등 새 디자인도 눈길

롱패딩이 달라졌다. 검정색 등 무채색 계열의 단조로운 색상 라인을 벗어나 한층 화려해진 모양새다. 다양해진 색상만큼 디자인에서도 변화가 돋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검정색 롱패딩의 수요는 줄고, 컬러풀한 롱패딩의 인기가 높아졌다.

실제, 흡소깡 업체 GS샵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판매량 중 90%를 차지하던 검정색 롱패딩의 수요는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반면, 그 외 색상의 제품 판매량이 40%를 넘어서는 브랜드는 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핑크, 머스터드, 블루, 카키 등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무채색 외 제품을 주력으로 내세우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핑크부터 레드까지... ‘컬러풀’에 주목



아디다스골프 구스다운.

아이더,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핑크를 중심으로 한 파스텔톤에 주목했다. 아이더의 경우, 피치, 인디안 블루, 다크 네이비, 블랙 등 총 4종으로 구성된 ‘나르시스 롱패딩’에 주력하고 있으며, 노스페이스는 다크 네이비 색상의 ‘익스플로링 2 코트’와 핑크 컬러의 ‘익스플로링 코트’를 새롭게 선보였다.

네파도 ‘컬러풀 롱패딩’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네파는 신제품 프리미어 벤치다운 ‘프리미어’에 도시 본연의 색을 담은 ‘어반 컬러(Urban Color)’를 적용, 소비자들이 우아하면서도 은은한 색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브랜드 푸마는 올해 색상을 대폭 확대했다. ‘벤치코트’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블랙, 네이비, 카키, 그레이 등 4가지 색상이었으나, 올해는 그레이를 제외하고 화이트, 핑크, 머스터드 색상을 추가해 총 6가지로 선보인다.

대담한 색상에 주목한 브랜드도 있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하 디스커버리)은 오로라에서 영감을 받은 그라데이션 프린트와 네온 비비드 색상, 글리터 소재 등을 접목해 진취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패션 브랜드들은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보다 한층 과감한 색상에 주목했다. ‘바닐라B 헝가리구소 100% 룬다운 코트’는 선명한 빨강 색상을, ‘라빠아프 풍선패딩 룬구스다운’은 초록 색상을 출시했다. SJ와니의 ‘이태리 니트솔 구스다운 코트’는 톤 다운 된 베이지, 워민트, 세피아 브라운 등 세련된 색상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푸마, 아디다스골프 등은 밝은 색의 제품이 땅에 끌려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 안쪽과 밑단에 후크를 채우는 새로운 폴딩 시스템을 적용했다. GS샵 라이프패션팀 이지은MD는 “획일화된 롱패딩의 디자인과 색상에 식상해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며 “업계는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 이미 롱패딩을 구매했던 소비자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롱패딩을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마 벤치코트.

◆핏 살리고 기능 높이고

핑크 색상을 전면에 내세운 ‘아디다스골프 구스다운 9010 벤치코트’는 지난 10월 27일 방영된 GS샵 프로그램 ‘쇼미더트렌드’에서 28분여 만에 10억 원의 주문을 올렸다. 가장 먼저 매진된 색상은 핑크다. 뒤이어 화이트가 매진됐다.

푸마의 ‘벤치코트’ 역시 지난 10월 28일 GS샵 방송에서 1시간 동안 5500여 벌 판매, 9억 원의 주문을 올렸는데, 전체 판매 제품 중 40%가 블랙 외 제품이었다.

업체들은 색상을 다양화하면서 디자인과 기능에도 주목했다. 절개선을 넣어 옷핏을 살리거나, 옷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새로운 폴딩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변화가 돋보인다.

아이더의 ‘나르시스 롱패딩’은 밑단 옆 부분에 옆트임이 가능하도록 지퍼를 적용, 보행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편리하도록 했다. 또 긴 기장에 따라 부해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선에 슬림한 라인을 강조했다.



아이더 나르시스 롱패딩.

이밖에 푸마, 아디다스골프 등은 밝은 색의 제품이 땅에 끌려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 안쪽과 밑단에 후크를 채우는 새로운 폴딩 시스템을 적용했다.

GS샵 라이프패션팀 이지은MD는 “획일화된 롱패딩의 디자인과 색상에 식상해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며 “업계는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 이미 롱패딩을 구매했던 소비자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롱패딩을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min0812@



10월 31일 열린 중국 유학생 최대 문화교류행사인 ‘중국의 날’에 신라면세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신라면세점을 홍보했다. /신라면세점

## 신라면세점 中 광군제 앞두고 ‘밀레니얼’ 공략

인터넷면세점 매출 비중 90% 달해

신라면세점이 중국 최대 쇼핑 성수기인 ‘광군제(光棍節·11월 11일)’를 앞두고 중국 ‘밀레니얼 세대’ 공략에 나섰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10월 31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재한 중국 유학생회 주최의 ‘중국의 날’ 행사에 참여해 특별 부스를 설치하고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의 날’ 행사는 2013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주한 중국대사관, 중국 기업체 임직원 등을 비롯한 약 2000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교류 행사다.

신라면세점은 ‘중국의 날’ 행사에 참여한 유학생들에게 신라면세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라면세점 멤버십 가입 이벤트를 진행했다.현장에서 QR코드로 신라면세점에 신규 회원 가입한 중국 유학생들에게 ▲신라면세점 사은권, ▲‘발리프’, ‘잇츠스킨’, ‘동인비’ 등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증정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날

행사에 주요 후원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중국 유학생들을 공략하는 이유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대표적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2030세대를 말한다. 디지털과 모바일에 익숙하고 큰 소비력을 발휘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세대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라면세점의 중국인 매출 중 밀레니얼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으로 큰 구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특징을 가져 신라인터넷면세점 중국물 매출 중 밀레니얼 세대의 비중은 90% 이상에 달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를 앞두고 중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 중국의 날 행사 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밀레니얼 세대를 잡기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서 기자 tree6834@

## 미샤 ‘라인프렌즈 에디션’ 론칭

미샤는 ‘라인프렌즈 에디션’을 론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에디션은 글로우 텐션, 새도우 팔레트, 비비크림, 틴트 등 12종 28품목으로 구성됐다. 제품 케이스에는 라인프렌즈의 캐릭터가 적용됐다.

글로우 텐션과 러브시크릿 핸드크림은 각각 4개 품목이다. 글로우 텐션은 21호(페어, 바닐라), 22호(베이지), 23호(샌드)로 구성됐으며, 러브시크릿 핸드크림은 피치카데일, 코튼화이트, 와일드 체리, 그레이프프루트로 나뉜다.

M 퍼펙트 커버 비비크림은 21호(화사한 베이지)와 23호(자연스러운 베이지)로 구성됐다. 이 외에 미샤 부스트 카라와 위시스톤 틴트, 탱글 젤리 펄 플럼퍼 등이 에디션에 포함됐다.

신제품도 출시됐다. 컬러 필터 새도우 팔레트는 매트, 쉬머, 글리터 3가지 텍스처로 구성됐으며, 10가지 색상을 새도와 블러셔로 활용할 수 있다.

셀프네일살롱 네일 키트도 분위기 풍당 브라운, 사랑에 빠진 초코 등 2개 품목이 추가됐다. 각 키트 별 2가지 색상과 1가지 글리터로 구성됐다.

에이블씨엔씨 유효영 마케팅부장은 “전무는 ‘고객들의 꾸준한 요청으로 지난 2016년 1월 이후 3년여 만에 미샤 라인프렌즈 에디션 제품을 다시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미샤의 라인프렌즈 에디션 제품들. /에이블씨엔씨

시공사: (주) **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  
 월 100만원 / 연 1200만원 10년 임대관리!

**선시공 후분양**  
**회사보유분**

**9.13 부동산 규제정책 반사이익 수혜상품!!**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산업단지 5분!**

**6천에 2채**

계약즉시  
 월세수익

임대료지급보증 보험증권 발행

**100% 임대완료! 준공완료!**

공실걱정 無 유지보수 無 중개수수료 無

- ✓ 1가구 2주택 미적용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 ✓ 양도세 증가 미적용

삼성 SDI, 디스플레이  
 LG생활 + 17개 대학교  
 ↓  
 약 18만 풍부한 수요

시행사: (주)골든핏 씨앤디 **대림산업** **아시아신탁** **엔터렘**

우리카운셀링 : 1006-301-474637  
 예금주: 아시아신탁(주)  
 청약금: 100만원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 1600-9460**

**10년 임대보장 확정! (보험증권 발행)**

시공사: **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아산탕정산단  
 삼성전자  
 삼성코닝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정밀 등  
 약 30,000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백석농공단지  
 천안유통단지 등  
 약 60,000명

단국대학교  
 백석대학교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기술대학교  
 약 40,000명

아크로텔 천안두정  
**“풍부한 임대수요”**  
 약 130,000명

시공사: (주) **DAELIM** 아크로텔오피스텔 **서울의 반값 매각 공고**

▶ 건축개요

사업명	천안 두정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 선임대 반값 매각		
사업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64	신탁사	아시아신탁(주)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지구	시공사	대림산업(주)
대지면적	7,338.40㎡	연면적	67,484.95㎡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2층	공급호수	1,135세대

▶ 청약 및 계약 신청자격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분양신청의 중복 호실에 있는 경우 입금 순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청약신청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계약신청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분양조건

전세대 임대완료			
보증금 500 / 월 50	보증금 1,000 / 월 46	보증금 1,500 / 월 42	보증금 6,500 / 월 25
* 10년 책임임대보장제 (보증보험증권발행)			

▶ 청약금 납입절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청약금
우리은행	1006-301-474637	아시아신탁(주)	100만원
* 상기 입금계좌 접수순으로 1순위 층, 호수 선착순 마감합니다. (미계약시 전액환불)			

▶ 분양금 납입절차

계약금	담보대출	잔금
10%	70% (신한은행 상도역 지점)	10% ~ 15%
* 실투자금액 2천만원대		

▶ 청약 및 계약장소

청약, 계약	신청장소
층, 호수 선착순 지정계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2층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오피스텔 홍보관

※예약당당제이므로 담당지와 방문예약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지참하시면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천안 두정아크로텔은 대림산업이 시공, 준공완료한 임대주택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골든핏씨앤디의 임대 보유분 매각 경과는 시공사인 대림산업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혜택** 1 1가구 2주택 미적용 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3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4 양도세 증가 배제

**문의 1600-9460**

# ‘광주형 일자리’ 급물살... 현대차 투자 협상안 전격 합의

(시-노동계)

현대차 요구사항 종합해 수정보완  
민주노총·노조 반발 등 과제로 남아

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협상과 관련, 지역 노동계와 합작법인 대주주인 광주시가 최종 협상안에 합의했다.

노동계가 노조 패싱과 불통 행정 등을 이유로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지 43일 만, 첫 원탁회의가 열린 지 6일 만이다.

현대차 협상의 중대 고비를 넘기로 첫 단추를 다시 꿰 것으로 집권 여당의 전폭적 지지까지 얻은 상황에서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협상과 법률 검토, 현대차 실적 부진,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반발은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오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 3차례에 걸친 원탁회의를 끝으로 7인 원탁회의를 종료하고 원탁회의에서 도출한 광주시와 노동계 간 조정합의문을 토대로 현대차와 최종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노동계가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투자협상 관련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병규 원탁회의 의장. (왼쪽부터) /뉴시스

이날 회견장에는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과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이기곤 기아차 전지회장, 자동차산업·노사 관계 전문가인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 등이 배석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은 원탁회의에서 초기에 마련한 협약서와 이후 현대차 요

구사항 등을 종합해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12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6월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기본토대로 올해 3월 체결된 ‘빛그린산단 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결의문’을 부분 반영해 이뤄졌다.

투자유치 체계 구성과 향후 발전 방안, 경영수지 분석, 부품업체 노사 의견 반영 등이 두루 포함됐다. 특히 광주시는 제2

차 원탁회의에서 전문가 등이 제안했던 (가칭)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 건의와 노정간의 상시 대화기구인 (가칭) 노정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한 원탁회의는 산파역할을 마치고 이날부로 해산되고,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의 대화채널은 투자유치추진단으로 공식 전환되게 됐다.

투자유치추진단은 원탁회의 의장인 박전 부시장이 빠지는 대신 나머지 6명에 시민대표로 황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공익전문가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류전철 교수가 새로 참여해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성공적 투자유치 구현을 위한 협의체로서 역할을 하되 현대차와의 협상을 직접 담당할 협상팀의 구성과 협의는 대주주인 광주시가 맡기로 했다. 추진단의 첫 회의는 2일 있을 예정이고, 현대차와의 최종 협상은 이후 곧바로 진행될 계획이다.

박병규 원탁회의 의장은 “마라톤 협상 등을 통해 현대차와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며 “현대차와의 투자자 간 합의, 큰 틀의 노사정 대타협은 조만간 이

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빠르면 다음주에도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원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시와 노동계 간 신뢰가 회복된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계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유치추진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지속가능한 사업 협약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광주발전을 위한 대응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세부 조건이나 법률적 검토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투자 실현을 위한 첫 고비인 노정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 수준과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에 대한 합의와 합작법인 설립과 투자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반발, 현대차의 실적 저조 등은 종착역인 노사민정 대타협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장흥흑우’가 명품 한우시장 이끈다

## 장성군 “장성호, 사계절 복합 휴양단지로”

장흥흑우 시식회 열고 발전방안 모색  
시장개척... 新먹거리·소득 향상 기대

강수육장·계류장 등 조성사업 추진  
군수 “천혜의 조건 갖춘 소중한 자원”



이르면 오는 2020년 장흥 토요시장에서 ‘장흥흑우’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장흥군은 지난 10월 31일 군청 회의실과 토요시장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장흥흑우 시식회를 열었다.

군은 이번 시식행사를 통해 장흥흑우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식회에 앞서 ET바이오텍 정연길 박사는 국내 한우산업의 현황과 흑우 생산과정 및 도축성적에 대해 설명했다.

전세계에서 기르고 있는 소는 250여 품종에 달하며, 국내에서 사육중인 소는 황우, 흰소, 흑우가 있으며 연구 결과, 국내

한우 품종 3가지는 뿌리가 같아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새로운 우량 품종 개발의 소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장흥흑우는 흰소와 한우의 교잡을 통해 생산된 고급육 실용축(F1)이며, 단면적, 지방 두께, 지육의 중량이 한우보다 우수하며, 한우보다 큰 체형의 유전자를 90% 이상 보유한다.

장흥군은 흑우 브랜드 개발로 명품 장흥한우의 이미지를 높이고, 흑우 전문매장을 개설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흑우 시장 개척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

유두석 장성군수가 최근 나주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를 찾아 최규성 사장에게 장성호 개발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공사 측의 협조를 구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장성호’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장성호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공사 측의 양해 없이는 장성호 개발계획을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 군수는 최 사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장성호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적극 어필하며 기존 장성호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형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장성호 하류 구간에 강수육을 즐길 수 있는 강수육장과 수상레저스포츠를 위한 계류장,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에 장성호 개발을 주제로한 사업을 공모해 국비 28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다.

유 군수는 강수육장과 계류장, 수변공원, 기타 편의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설 곳으로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장성댐 하류 부지를 낙점하고, 이날 농어촌공사 측에 체육시설과 유희지로 남아 있는 9만 4000여 평방미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자유치를 통해 질트랙 등을 체험하는 레저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민간기업의 투자가 구체화될 경우 레저사업 허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군수는 또한 지난 6월 출렁다리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있는 장성호 수변길을 전국 최고의 트레킹길로 만드는 가칭 ‘장성호 수변 백리길’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현재 수변길은 임도와 나무데크길로 7.5km가 이어져 있고 출렁다리 1개가 조성된 상태다. 장성

군은 일부 구간에만 설치된 수변길을 총 34km로 늘려 백리길로 만들고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2개 더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가 우선 되어 함에 따라, 유 군수는 빠른 시일 내에 백리길 조성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 측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어촌공사는 장성호가 갖고 있는 잠재력 가치가 핵심 관광자원으로 키워지는 데에 공감하며,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협조하기로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우리의 개발구상에 협조 의사를 보여준 농어촌공사에 감사하다”며 “장성호는 사계절 체류형 복합 휴양단지가 되기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소중한 자원으로 앞으로 양 측이 소통을 늘리며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봉태영 기자

**〈분실공고〉**  
**아우디 해운대 전시장 이태훈 차장**  
 계약서 분실공고  
 계약번호: PKA 028280  
 PKA 028906

**오늘의 날씨**

11월 2일 (금)  
 음력: 9월 25일

수도권 날씨  
**4~1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58 | 해질 / 17:33

지역별 날씨: 연천 -1/16, 동두천 0/18, 가평 -2/18, 파주 -1/17, 서울 4/17, 양평 0/18, 수원 3/17, 용인 3/17, 평택 1/18, 백령도 10/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업체모집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이하 고양허브)가 방송영상 미디어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과 가상오피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업체모집에 나섰다. 고양허브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설립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방송영상·미

어콘텐츠 융합 창업지원센터로 오는 12월 고양시 장항동 소재 M-City에 개관해 스타트업 지원 및 방송영상 미디어콘텐츠 분야 기획, 교육과 컨설팅, 실습 제작을 위한 최신 시설과 1인 미디어에 특화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입주기업 모집은 총 40개사로, 사무공간 10개, 가상오피스 30개 내외다.

사무공간은 4인실 6개, 5-6인실 4개이며, 최대 2년간 이용할 수 있는 독립형 사무실이다. 사용료는 6개월 기준 4인실 60만원, 6인실 90만원 원이고, 별도 관리비는 없다.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의 기업(법인/개인) 및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상오피스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소지와 지정 우편함 및 사무를 볼 수 있는 오픈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하며, 사용료는 무료다. /경기 고양=김승열 기자 kimsy@

# 내년 예산 35조7843억 '역대최대'... 복지 10조 돌파

## 2019 서울 예산안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 방점  
주거안정 등 8대분야 중심투자  
일자리에 1.78조... 55% 증액**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 7기를 시작한 이후 현장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 개개인의 삶의 무게를 나누고 책임지겠다”며 35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35조7843억원으로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했다. 최근 8년 중 증가 폭이 가장 크다. 특히 복지 예산에 11조1836억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9448억원이며,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외부경비 8조9418억원을 뺀 실제 집행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이다.

시세는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래 감소로 올해 예산 대비 6893억원 증가한 17조7858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7536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는 지방채 2조4021억원을 발행해 확대 재정 운용한다.

박 시장은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니 걱정하는 시민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시는 지난 7년간 8조원 이상의 채무를 감축해 재정 균형을 이뤄왔다”며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 확대 재정을 해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 수준이라며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한다. 8대 분야는 ▲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시는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렸다.

복지 예산은 내년 11조1836억원으로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5.8% 늘어난 규모로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80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다. 이를 통해 시는 총 37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린다. 총 1조272억원을 편성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시는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캠퍼스타운은 32곳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에도 착수한다.

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9168억원을 배정했다.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 주거지 집수리 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967억원을 투자한다. 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등 ‘자영업자 3중세트’를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3조5462억원을 투입, 돌봄공공책임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시는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한다.

노후 지하철과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안전 분야에는 1조4781억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 분야에는 5442억원을 투자한다.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 확충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 분야에는 5440억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 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이 투자해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 프랑스 에어리퀴드, 경기 화성에 310억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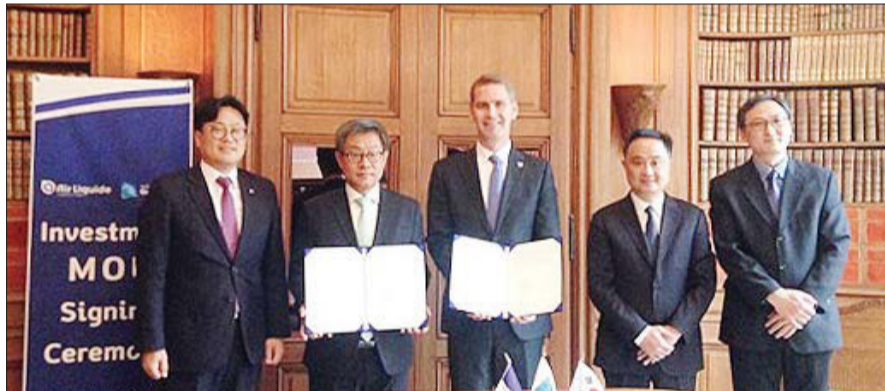
### 투자공장 증설... 고용 창출 기대

세계적인 화학회사이자 산업용가스 분야 선도기업인 프랑스 에어리퀴드가 경기도 화성 장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2800만 달러(한화 310억원, 외국인직접투자 미정)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과 에어리퀴드 어드밴스드머티어리얼즈 폴 카드웰 버링게임 대표는 지난 3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어리퀴드 그룹 본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어리퀴드는 화성 장안 외국인투자지역에 2014년 전자재료 부문 첫 공장을 준공한 이후 신제품 개발연구를 진행해 왔다. 에어리퀴드는 최근 반도체 공정의 성능개선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며, 신제품 상용화를 위해 이번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에어리퀴드는 약 310억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을 증설할 예정인데 공장증설이 완료되면 화성공장이 아시아의 반도체용 신소재 생산기지 역



박신환 경기도경제노동실장과 에어리퀴드 폴 카드웰 버링게임 대표가 협약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공장 증설로 2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에어리퀴드는 이번 협약에서 110년 안전경영의 전통을 가진 자사의 화학 안전기술 노하우를 도내 특성과 고등학교에 전수하는 등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에어리퀴드는 1902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됐으며, 산업가스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약 26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 진출

해 35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최근에는 석유화학, 철강,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산업 및 가정 의료 부문에 이어 수소에너지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폴 버링게임 에어리퀴드 어드밴스드머티어리얼즈 대표는 “장안외투단지 확장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한국 및 해외의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투자과정에서 보여준 경기도의 강력한 지원과 파트너십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라운건설 등 5개 업체 주택 품질검수 ‘우수’

경기도, 아파트단지 143곳 평가  
‘전인씨엠 사무소’ 우수 감리업체

경기도가 지난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한 14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라운건설·반도건설·아이에스동서·호반건설을 우수 시공업체로,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를 우수 감리업체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라운건설은 수원 라운프라자 아파트, 반도건설은 의정부 민락반도유보리아 이비파크 아파트, 아이에스동서는 하남에 일린의 뜰 아파트, 호반건설은 부천 옥길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단지를 시공했다.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는 수원 영통 라운프라이빗 아파트 단지를 감리했다.

이번 평가는 건축, 토목, 조정, 전기·기계설비, 입주자 생활편의 증진 등 아파트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경기도와 시·군 담당부서 자체평가와 민간전문가의 3단계 평가를 거쳐졌다. 시공 사별 선정내용은 라운건설의 수원 라운프라이빗아파트는 단지 중심부에 소나무 정원, 빛의 정원, 물의 정원을 조성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기계실 정비 및 배관 우수마감으로 평가를 받았다. /경기=김승열 기자

## 서울시, 양화대교 경관조명 LED로 교체

### 에너지 48% 절감효과 기대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에너지절약 지침에 따라 소등했던 양화대교 경관 조명을 LED 조명으로 새로 단장해 2일부터 점등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교체된 LED 조명은 다양한 조명 연출이 가능하고 전력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다. 시는 기존 저압 나트륨등(5만 8728W)에서 LED조명(3만 284W)으로 교체한 후 약 48%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양화대교 아치의 우아함을 살리기 위해 화이트와 골드톤의 조명을 설치했다. 다리 난간은 여러 가지 색을 내 화려함을 강조했다. 교량 아래에는 유람선이 다니는 점 등을 고려해 다른 교량보다 밝은 조명색을 사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경관조명은 ‘신·구의 화합을 통한 번영’을 주제로 디자인됐다. 교량 점등 시간은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시민들이 한강 둔치로 밤 나들이를 많이 나오는 5~10월에는 자정까지 운영한다.



양화대교 모습. /서울시

현재 한강 교량은 총 25곳이다. 이중 경관조명을 운영하는 곳은 이번에 점등하는 양화대교를 포함, 총 19곳이다. 시는 내년 잠실철교 경관조명을 보수해 점등할 계획이다.

천호대교, 마포대교, 마곡대교 등 나머지 대교는 오는 2020년 이후 연차적으로 점등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양화대교에 경관조명이 더해져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과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겨울철 노숙인·쪽방촌 주민 보호대책 추진

### 서울시, 콜센터 운영 등 보름 앞당겨

서울시는 이른 추위가 예상돼 전년보다 보름 앞당긴 1일부터 겨울철 노숙인과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주요 내용은 ▲노숙인 응급 잠자리 ▲거리 노숙인·쪽방촌 현장상담반 109명 편성운영(특보시 132명) ▲중증질환자 244명 집중관리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노숙인 시설·쪽방촌 화재예방 관리 지원 등이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등을 활용한다.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들을 위한 응급쪽방(임시주거지원사업) 110개를 연계해 최대 1336명까지 수용 가능한 응급 잠자리를 마련한다.

거리노숙인 순찰·상담반과 쪽방촌 현장상담반을 운영해 매일 2~4회의 순찰과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거리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중 고령이나 중증질환자 등 244명을 별도로 분류해 이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전문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시는 11월 초 한파 관련 사고 위험이 높은 집중관리대상 거리노숙인에게 고시원 등 임시주거를 제공해 보호한다.

시는 기업과 민간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기부받은 겨울옷 3만여 점을 서울역 우리옷방, 응급구호방, 시설 등의 노숙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금융]**  
KB국민은행  
창립 17주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언  
04



Life

**[산업]**  
LG전자  
가구 품은 가전  
'오브제' 첫 선  
06



# 컨디션F→컨디션ADH→컨디션파워→헛개컨디션파워... “확 깬다!” 국내 첫 숙취해소제 지금도 진화중

## 메가이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4 CJ헬스케어 '컨디션'

1인당 국내총생산(GDP) 7224달러, 접대나 회식에서 폭주를 즐기는 문화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1992년에 30·45 남자 직장인들의 숙취를 덜어주겠다며 혜성처럼 등장한 제품이 있다. 우리나라에 숙취해소 음료시장을 연 '컨디션'이다.

#### ◆숙취해소음료 시장을 열다

컨디션은 출시 초기에 약국부터 공략해 약사를 통한 판매 전략을 펼쳤다. 약사의 목소리를 빌려 제품의 효능을 알리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고가격을 지불하고도 믿고 마실 수 있는 음료로 자리잡도록 한 것이다. 약국에서 입지를 구축한 컨디션은 슈퍼마켓, 마트 등으로 유통 경로를 빠르게 확대해나갔다.

1992년 컨디션의 탄생은 자양강장제 일색이었던 병 음료 시장에 숙취해소음료 카테고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시발점이 됐다. 컨디션의 성공에 힘입어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식품기업과 제약기업, 주류기업까지 연달아 진출하기 시작했고, 시장이 형성 되자 2년 만인 1994년에 무려 7배가 늘어난 700억원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컨디션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숙취해소를 책임지는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해 2017년 기준 1800억원 규모(링크아즈텍)의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대표 제품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 ◆끊임 없는 브랜드 혁신

컨디션의 주요 성분 중 하나는 미배아발효추출물(글루메이트)이다. 미배아발효추출물은 콩에서 추출한 성분과 쌀 배아를 함께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숙취를 일으키는 알코올성분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쉽게 분해해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컨디션'의 성공에 자극 받은 업체들이 앞다투어 숙취해소 음료 시장에 진출했으나 '컨디션'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컨디션'이 오랫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1위 브랜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품력'과 '끊임 없는 혁신'에 있었다. 더 효과적인 숙취해소 제품을 만들기 위해 동물실험, 임상시험 등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총 6번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

1999년 미배아발효추출물과 타우린을 보강한 컨디션 F를 출시했다.

2003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일본 마루젠 연구소와 3년간 'ADH프로젝트'를 진행해 컨디션 F의 효능을 개선한 '컨디션ADH'가 선보였다.

2007년 미배아발효추출물, 글루타치온 등을 보강하고 용량도 75ml에서 100ml로 증대한 '컨디션파워'를 출시했다.

2009년 국산 헛개나무 열매 성분을 추가한 '헛개컨디션파워'를, 2012년 헛개 성분을 30% 강화한 '헛개컨디션'을 공개했다.

2017년 CJ헬스케어는 프리미엄 숙취해소음료 '컨디션CEO'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숙취해소 관련 특허를 받은 월계수 잎,

### 컨디션 변천사



### 컨디션 슬로건 변천사

년도	Key Claim
1992년	접대가 많은 비즈니스맨의 드링크
1993년	컨디션 미리 챙겨조
1996년	아침의 약속을 위하여
1998년	상쾌한 아침을 위하여
2001년	나눌수록 커지는 상쾌함
2003년	내겐 컨디션이 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하여
2005년	7시에 챙기자
2009년	음주 전후 숙취해소를 빠르게! 확 깬다
2014년	음주 전후 숙취해소를 빠르게! 확 깬다
	챙기자 내사람, 챙기자 컨디션
2015~2017년	챙기자 컨디션, 확 깬다 컨디션
2018~	(컨디션CEO) 숙취해소 계의 전문 CEO, 컨디션CEO

자료/CJ헬스케어



(왼쪽부터) 컨디션CEO, 컨디션레이디, 컨디션환EX, 중국 수출제품, 일본 수출제품.

1992년 국내 첫 숙취해소 음료 출시  
약사 통한 판매 전략으로 신뢰 높여

미배아발효추출물 넣어 알콜 분해  
타우린·헛개나무 등 6번 강화 거쳐

환 형태·여성용 개발로 소비자 공략  
中·日·越 시장에 숙취해소 문화 전파

자리, 선인장 열매(백년초) 복합추출물이 새롭게 추가됐다.

#### ◆제품 라인업 강화

CJ헬스케어는 시장조사를 통해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숙취해소음료와 함께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을 함께 찾는 소비자층이 있다는 점,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챙길 수 있는 숙취해소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층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 2012년 환 형태의 '컨디션환EX'(식품)를 선보이며 컨디션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컨디션환EX에는 각각 진통완화, 메스꺼움 감소, 운동능력향상 및 항피로효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버드나무껍질', '진피', 그리고 페루의 인삼으로 불리는 '마카'라는 천연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 3가지 성분을 먹기 좋은 사이즈의 환으로 만든 컨디션환EX는 파워치(포)로 제작돼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컨디션과 함께 간편하게 숙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접대가 많은 비즈니스맨의 드링크'로 시장의 포문을 연 컨디션은 2009년까지는 남성 소비자를 타겟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음주인구 또한 증가하면서 여성용 숙취해소음료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다. CJ헬스케어(당시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는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2013년 여성을 위한 숙취해소음료로 컨디션레이디를 출시해 여성용 숙취해소음료시장을 새롭게 열었다.

컨디션레이디는 여성이 남성과 같은 양

의 알코올을 섭취해도 위와 간의 손상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헛개컨디션의 주요성분은 유지하고 항지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인, 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히알루론산, 그리고 비타민C를 첨가해 여성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 ◆이제는 글로벌

컨디션은 국내 최초, 시장 점유율 1위 숙취해소음료에서 머무르지 않고 제품이나 마케팅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 이러한 시도가 쌓여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숙취해소음료 분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인정받았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을 등에 업은 컨디션은 이제 국내를 넘어 중국, 일본, 베트남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새롭게 숙취해소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컨디션은 2014년 3월, 중국 북경 중심 화북지역 등 메인 스트림에 진출했다. 중국 제품명은 기존 제품명과 발음이 유사하고 중국어로 '깨어나다'의 의미를 가진 肯迪醒(컨디싱)으로 정했다.

2014년 5월 컨디션은 약 5000억원 이상의 숙취해소음료 시장을 갖고 있는 일본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4년 6월에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 중국 다음으로 맥주 소비량이 많은 국가인 베트남까지 진출했다.

CJ헬스케어는 컨디션 진출국가를 동남아 등 타 국가까지 넓히기 위해 지금도 세계를 누비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사진=CJ헬스케어



컨디션(1994)